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속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주님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맞으며 우리의 신앙과 삶을 다시 돌아보며 믿음을 다짐하는 시간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1편 1절

주님 고난 되짚어보는 시간의 매듭, 사순절!

2019년 사순절 기간을 창의적이고 은혜롭게 보낼 수 있는 제안 소개

매년 봄과 함께 찾아오는 사순절은 그리스도들에게 무척 의미 있는 시간이다. 절기 즉 교회력은 시간 속에 하나의 매듭을 만들어줌으로써 우리의 삶이 시간에 휩쓸려 쉬이 흘러가 버리지 않도록 다잡아주기 때문이다. 이런 시간의 매듭 위에서 특별한 신앙적 실천을 수행함으로써 우리는 지금 스스로가 어디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과 실천을 점검하게 된다.

교회력에 의하면 사순절은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로 시작해 부활절에 이르는 40일간의 영적 여정이다. 사순절의 영적 여정은 부활절 바로 전에 지켜지는 고난주일에 이르러 절정을 맞이한다. 세계 많은 교회들에서는 이 기간 동안 예배와 예전을 통해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주와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3월 6일 재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올해 사순 시기가 시작됐다. 사순 시기는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이 기간은 전통적으로 부활절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도와 금식과 자기 성찰을 위한 시간으로 지켜오고 있다.



사순절과 관련 있는 단어로는 세례, 수난, 십자가, 죽음, 부활이 있는데, 이 단어들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 행해지는 예전의 의미를 담고 있다. 사순절은 세례와 깊은 관련이 있는데 초대교회로부터 부활절 전야에 베푸는 세례를 준비하는 기간이었다. 이미 세례 받은 자들은 이미 받은 세례를 다시 생각하고 참회함으로 부활을 준비한다.

예수님 부활을 준비하며 행했던 금식은 역사적으로 2, 3세기경 부활 전 금요일과 토요일에 시도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활 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하루 중 절반 정도만 단식하고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부활 성야 예배 전까지 온종일 금식했다고 한다.

완화를 위한 고신극기의 의미도 있었는데, '운둔 수도자들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집트의 성 안토니오와 제자들은 육식을 절제하고 빵과 물, 소금 이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고 한다.

전승에 따르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도 며칠 동안 부활 전 금식 규정을 지켰다. 이미 유대인이나 이교도들의 종교 예식에서 영향 받은 배경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것을 모범으로 삼으려는 의미가 컸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한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교회 절기로서 사순절을 의미 있게 경축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의미를 현대적으로 이해하고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금욕적이고 율법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창의적이고 은혜로운 분위기가 되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그렇기 않으면 관례적인 교회 행사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히 차세대 젊은이들에게는 불편하고 어색한 옛 관습으로 여겨질 수 있을 것이다.

육식을 금하는 금육의 관습 역시 이미 세기 초부터 지켜져 왔다. 금육은 영적인

따라서 모든 기독교 절기의 축제성은 먼저 공동예배를 통해서 표현되는 것이 마땅하다. 공동예배를 통해서 참여자는

크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 확립과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대별로 나눠 그 세대에 맞는 절기 예배 뿐 아니라 온 세대가 함께 누리는 절기가 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절기다운 모습이다.

또 가장 중점으로 두어야 할 것은 세례 후보생의 준비다. 교회 내에서 그리고 가족 중에 세례 대상자들을 찾아내 권고하고 준비하도록 한다. 사순절 기간 내내 세례 대상자를 찾고, 그를 위해 준비하고 교육하며 기도해주는 과정과 분위기 속에서 온 교우들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만날 수 있다.

사순절의 경축에서 시각적 장식도 중요하다.

<3면으로 계속>

'자원의 저주'에 '부패' 인재까지 겹쳤다!

컨버세이션, 정치학자 스콧 모건스턴, 존 폴가 교수 통해 베네수엘라 구제 방안 제시

남미에서 가장 잘살던 베네수엘라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연일 외신을 통해 접하는 베네수엘라 상황은 이제 국가부도마저 예견될 정도로, 세계 최대 석유 매장국가인데도 국민의 90% 정도가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있을 정도다.

미 정치학자들의 해석을 통해 오일 머니로 벌어들이는 부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면서 부패의 유혹에 빠져 소위 '자원의 저주'에 걸린 베네수엘라 상황을 짚어본다(Why Venezuela's oil money could keep undermining its economy and democracy).

국민 통합으로 분열의 시대를 끝내고 '자원의 저주' 벗어날 제도적 장치 만들 리더십 요구



지난 달 12일,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거리 시위를 벌였다.

베네수엘라의 정치·경제 위기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실각을 위협하는 상황이다. 정치학자의 입장(필자 스콧 모건스턴은 피츠버그대학 정치학 교수이며, 존 폴가-헤시오

비치는 해군사관학교 정치학 부교수)에서 보면 그가 그런 처지에 봉착했다는 사실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3면으로 계속>



시론 최해근 목사



3면 중세교회 1000년 조진모 목사



7면 인/티류 민찬기 목사

16면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준학사 / 학사 석사 박사 수료증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D.Min), 교회음악학박사(DCM-온라인),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	---	---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베스트셀러 / 성구 / 성화 액자 / 가운 / 교회용품 / 영문성경 / 영문기독서적

교회 · 사업체 · 다락 · 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762-0011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 201)346-0030 5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Forever 우표 특별할인 판매

그동안 49센트에 판매되었던 Forever 우표 (별정 가격변동 없음)가 곧 60센트로 오를 예정입니다. 특별가게 38센트로 한정 판매 합니다.

www.lsbokusa.com / cbc0191@hotmail.com
대표 강병찬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가곡집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제2기 시니어 사역자 훈련학교 교회 부흥을 이끄는 시니어 사역 만들기

시니어 사역 아카데미는 지난10년 동안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 현장에서 체험한 시니어 사역의 경험과 프로그램을 토대로 '시니어 사역 전문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시니어분들이 Retire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차세대를 위한 영적 멘토로서 선교적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Refreshing, Redirecting, Resourcing하는 교회사역구조로 혁신할 때입니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시니어 선교사들이 섬기고 있는 도미니카 공화국 캠퍼스에서 개최하게 되어 시니어 선교사들의 일상도 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기원드립니다.

- 미래 AGING 연구소
- 시니어 사역 아카데미 대표 김재홍 목사

- 대상: 시니어 사역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목회자 혹은 장로, 평신도 리더
- 일시: 2019. 4.29 (월) 오후 5시~ 5.2 (목) 오전 10시
- 장소: 도미니카 캠퍼스 (World Grace Mission Center / Dominica Republic, Santo Domingo)
- 문의: Tel. 678-665-9927 / happysenior100@gmail.com
- 등록비: \$350 (숙식 및 교재비 포함 / 부부가 등록하시면 1인당 \$300입니다)
 - * 공항에서 픽업 및 라이드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 * 심도있는 세미나를 위해 수강생은 30명으로 제한합니다.






● 발행인 칼럼 ●

기술(技術)의 배반(背反)에 맞설 힘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숨 가뻔던 2차 미국과 북한 의 회담이 아무런 소득 없이 결렬되었다. 비핵화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확연히 달랐기 때문이다. 핵은 인류에게 공포다. 원래 핵을 비롯한 기술의 발전이 인류에게 고통을 주기 위함이었는가? 그렇지 않다. “인류에게 보다 편리함과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함”을 표방하며 기술이 등장한 것이다. 기술은 실제로 홍수, 가뭄, 폭풍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무수히 줄여 주었고 사람들에게 갖은 안락함을 선사했다. 그런 기술이 배반하였다. 인류가 고도화된 기술 때문에 신음하고 있음이 보여준 것이 이번 회담의 실체가 아니었던가.

이미 수년 전 이세돌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바둑 대결에서 보았듯이, 기술의 진화 가운데 등장한 인공지능은 인간의 통치를 받기보단 인간을 견제하거나 조종하는 위치로 급격히 발전하고 있다. 발전된 기술은 도시는 물론 본의 아니게 아름다운 농경풍경까지 삭막하게 바꾸어 놓았다. 기술은 인간과 자연을 향해 힘차게 진격(進擊)하고 있다.

이런 기술(技術)의 배반(背反)에 맞설 힘이 인간에게 있는가? 아이러니하게도 기술의 배반에 맞서기가 우리 인간에게는 역부족(力不足)이라는 생각이 들어 우울하기만 한가. 우울해하지 말자. 실망하지 말자. 기술의 배반에 맞설 힘이 여기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여백(餘白)의 미학(美學)이다.

복잡한 서류를 잠시 밀쳐놓고 여백의 미를 단아(端雅)하게 드러내는 시(詩)를 펼쳐보자. 봄도 되었으니 봄을 연주하는 서정적(抒情的)인 음악을 듣기도 하고 봄노래도 불러보자. 복잡한 경제 지표에서 싱그러운 자연으로 눈을 돌려보자. 막장 드라마를 보여주는 방송을 끄고 차분히 인문학 강의도 들어보자.

분주한 채움보다 고요한 비움도 좋아해 보자. 급하게 돌진(突進)하는 세대에 멈춤으로 반격(反擊)해 보자. 가족이 모여도 제 각각 자기 스마트폰을 들고 그것과 교제만 하지 말고 가족이 빙 둘러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꽃도 피워보자. 아날로그 시대 때 딱지치기와 고무줄놀이가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자녀에게 들려도 주자. “깡이 바쁘신가요?” 라고 늘 듣는 인사보다 “여유가 있어 보이세요?” 라는 뜻밖의 인사도 들어보자.

19세기의 그레고어 멘델은 과학자였다. 또한 그레고어 멘델은 수도사였다. 수도사로서의 그의 여백은 과학자로서의 뚜렷한 업적을 만들어 냈다. 그의 과학적 완두콩 유전 연구는 그의 수도사적 묵상과 무관치 않다. 후자가 아니었다면 그의 연구는 인류에게 보편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고 개인적 업적으로 치닫거나 자신의 축재(蓄財)로 만족했을지 모른다. 여백의 미학이 과학을 진정한 과학 되게 하였다.

여백의 미학은 어디서부터 펼쳐졌는가? 안식(安息)이다. 안식은 기술 시대 이전부터 있었다. 안식은 창조 후에 취하신 하나님의 방법이다. 안식은 자신의 창조를 조망(眺望)하여 즐기며, 그 창조된 왕 되심을 선언하시는 것이다.

안식은 창조를 축복한다. 안식은 창조를 아우르는 힘이 있다. 원초(原初)적 여백인 안식을 통해 기술의 배반을 꾸짖을 수 있다. 꾸짖을 뿐 아니라 기술이 원래 목표로 했던 인간 섬김으로 되돌릴 수 있다. 여백의 미학, 창조의 안식을 도무지 모르는 자의 손에서 핵 같은 고도의 기술은 점점 더 인류 배반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솔직함’ 습관 갖는 소그룹에 비전 있다!

이코노미스트, 미국과 유럽에서 사회주의 부활... 이를 대안으로 믿는 밀레니엄 세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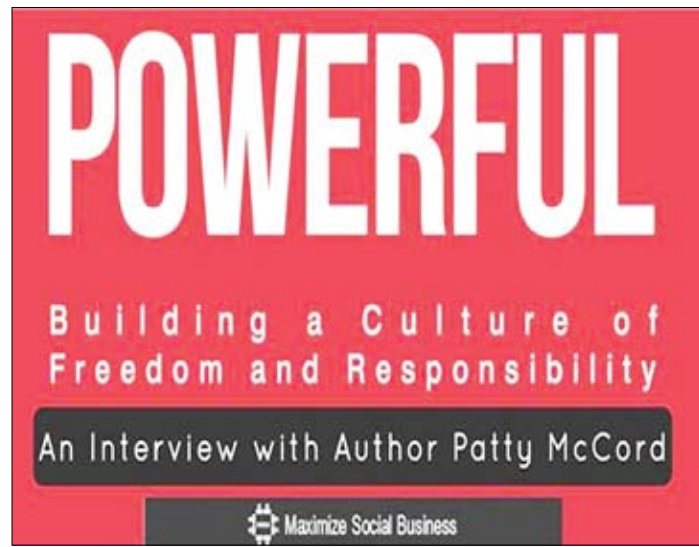
요즘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모이면 서로 확인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 바로 넷플릭스(Netflix)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다. 넷플릭스는 인터넷(NET)과 영화(Flicks)를 합친 말로, DVD 대여 사업으로 시작해 세계 최대 인터넷 동영상 스트리밍(실시간 재생) 업체로 성장한 미국의 혁신기업 이름이다. 넷플릭스는 1997년 창사 이래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미국 비디오 대여 1위 사업자였던 ‘블록버스터’를 파산시키고 업계 최정상에 올랐다. 넷플릭스가 이렇게 고도의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실리콘밸리 회사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기업문화 때문이었다. 쉽

게 말해 넷플릭스는 회사 내 팀 구성원들에게 자유와 책임을 주어 적극적으로 에너지 넘치는 팀을 만들었다. 그리고 각 팀의 역동성을 통해 회사전체의 동력을 얻고, 창의적인 발걸음을 옮기게 됐다. 넷플릭스의 최고기술책임자(CTO)로 14년간 일했던 패티 맥코드(Patty McCord)는 이러한 넷플릭스의 기업문화에 대해 설명하면서 솔직한 소그룹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그녀가 말하는 솔직한 소그룹은 과연 무엇일까? 솔직한 소그룹의 원칙은 어떤 유익을 가져다줄까?

직접 말해라!

넷플릭스의 가장 중요한 지침 중 하나는 팀 구성원 모두가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바로 직원들에게 투명성을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교회 내 소그룹도 마찬가지다. 구성원 모두가 소그룹 안에서 일어난 부정적인 일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불만을 한 편에 쌓아두거나 서로에 대한 험담을 일삼기보다 솔직담백한 반응을 직접적으로 나누고,



방향으로 나타나야 한다. 소그룹 리더는 구성원들이 더 역동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만큼, 그들이 전하는 비판적인 말도 직접 들을 수 있어야 한다. 리더가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모습은 구성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로 다가올 것이다. 반대로 구성원들도 자신들의 삶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서로가 실수를 솔직히 인정하면 얼어붙어 있던 마음이 녹

건설적 비판 솔직히 털어놓고 실수 인정 부정적 일 공개 가능해야, 마음속 뜻 정확히 전달

속으로만 간직하던 대안을 통해 의견의 차이를 좁혀야 한다. 이렇게 솔직한 소그룹 안에서 오해의 씨앗이 싹을 틔우는 일이 줄어든다. 오히려 이해의 꽃이 피고 유대의 열매가 맺힐 가능성이 높다. 성공적인 소그룹을 위해서는 소그룹 구성원 모두가 직접 말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뜻을 전달하는 연습을 하라!

무엇인가를 정확히 전달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그룹 안에서 뜻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는 대화를 나눠 문제가 생기는 일을 종종 발생한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소그룹 구성원은 각자 '전달의 기술'을 연마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언어와 표정뿐만 아니라 제스처와 같은 표현 도구까지 사용해 자신이 마음속에 가

진 뜻을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 혹시 원하는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으면, 즉시 빠르게 수정해서 전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각자 전하고자 하는 바를 온전히 전달 때, 오해의 구름은 걷히고 역동성의 빛이 소그룹의 등이 될 것이다.

솔직함을 습관으로 만들어라

넷플릭스 경영진은 ‘솔직함’을 모델화 했다. 각 팀원이 동료에게 시작해야 할 것 한 가지, 그만해야 할 것 한 가지, 매우 잘하고 있고 계속해야 할 것 한 가지씩을 말하게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내 문화가 ‘극도의 솔직함’을 가진 건강한 문화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교회 공동체 내 소그룹에서도 솔직함을 습관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서로의 눈치를 보며 해야 할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필요한 말을 솔직하게 할 수 있도록 거룩한 습관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통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색하거나 어려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소그룹 구성원들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투명성에 대한 기준을 엄격히 세워놓고 모델화 한다면 ‘거룩한 솔직함’이 소그룹 문화로 자리 잡아 소그룹뿐만 아니라 전체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 것이다.

실수를 솔직히 인정하면 마음이 열린다

소그룹 안에서 솔직함은 양

아내리며, 모두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나게 된다.

결국 거대기업 넷플릭스가 추구하는 핵심은 “솔직함”이었다. 기업 내에서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고 수용하는 자세를 갖자, 조직이 유기적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교회 소그룹도 마찬가지다. 마음속에 있는 건설적인 비판을 솔직하게 털어 놓고 실수를 인정한다. 이를 통해 관계적인 어려움이 없는 소그룹,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건강한 소그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유원정

<p>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213) 674-7982 (대표) (323) 665-0009 (광고국) E-mail: lachpress@gmail.com</p>	<p>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 (718) 886-4400 (대표) (718) 886-4424 (편집국) Fax: (718) 886-0074 (대표) E-mail: nychpress@gmail.com</p>
--	--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 (every Saturday) 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선교목회학 DMin in Missions
설교목회학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517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1-20 발행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새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주님 고난 되짚어보는 시간의 매듭, 사순절

(1면에서 계속)

사순절의 다섯 번의 주일에 배에는 보라색, 고난주일과 고난 주간에는 자색을 사용한다. 설교단의 장식이나 전면은 물론이고 예배 주보나 예배순서 담당자들의 복장을 통해서도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색의 변화를 통해서 회중들에게 교회 절기를 새롭게 도래했다는 것을 알릴 수 있고 예배자로 하여금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순절을 거룩하게 지킬 10가지 제안"을 소개한다.

1. Reflect on the Cross(십자가를 묵상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보여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복음의 능력을 매일의 삶 가운데 묵상한다.

2. Pray Daily(매일 기도한다)

매일 아침, 저녁, 일정한 시간을 개인의 기도시간으로 구별해 드린다.

3. Read the Bible(성경을 읽는다)

사순절 기간 동안 매일 성경 읽는 시간을 정한다. 십자가의 사건에 중점을 두는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것을 권한다.

4. Give up Something(무언가를 내려-금식-놓는다)

사순절 기간 동안 특정한 것을 금식하는 것이 전통적인 방법이다. 전자기기의 사용, 소셜 미디어, 단(초콜렛, 사탕) 음식, 커피, 술 등의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일들을 중단함으로써 영혼을 맑게 하는 일에 집중한다.

5. Start a Good Habit(새로운 영적 습관을 시작하라)

무언가를 내려놓는 것에 더해 새로운 습관을 시작한다. 사순절 동안 나의 영적성숙에 도움이 될 새로운 습관을 더하는 것이다. 비판적 사고를 떨쳐버리기 힘들면 남을 격려하는 일에 써본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6. Give your Time(시간을 드린다)

사순절의 기간 동안 여러분의 시간을 교회 봉사나 사회봉사에 사용해 본다.

7. Keep a Journal(영적 일기를 쓴다)

사순절 기간 동안 생각과 기도에 대한 묵상을 도울 수 있도록 영성일기를 쓰는 것을 권한다.

8. Make Time for Your

Family(가족과의 시간을 계획한다)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사순절 기간 동안 자녀와 특별한 시간을 계획해본다. 가족 등산을 하거나 특별한 점심을 약속한다. 가족과 함께 교회봉사 혹은 사회봉사의 시간을 활용해 보길 권한다.

9. Give Your Money(구제 혹은 헌금을 한다)

사순절의 기간 동안 구제를 위한 헌금을 모아서 교회 혹은 선교, 사회단체에 기부한다.

10. Forgive Other(용서한다)

사순절은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용서를 베풀어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이상 마음의 앙금을 가뒀는지 말길 바란다. 하나님께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한다.

시론

대통령의 날(Presidents Day)



최해근 목사 (몽고메리교회)

미국에서 매년 2월 셋째 월요일은 '대통령의 날'로 연방공휴일입니다. 대통령의 날이 2월 셋째 월요일로 정하게 된 이유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의 생일 때문입니다. 워싱턴 대통령이 1732년 2월 22일에 태어났는데 그분의 생일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의 날을 정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날을 정한 이유는 초대 및 2대

대통령으로 8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한 조지 워싱턴의 삶을 돌아보고 동시에 지난 대통령들의 봉사를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대통령의 날을 보내면서 우리가 떠난 조국의 대통령을 생각해 봅니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분들 중에서 2분은 현재 재판 중에 있고 그나마 자유로운 한 분도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슬픈 현실을 해외에서 목도하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한민국은 전직 대통령이었던 분들도 과감하게 감옥에 보낼 수 있을 만큼 정직하고 법이 통치하는, 그래서 대통령 아니라 그 누구라도 법을 위반하면 그에 마땅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훌륭한 나라이든지 아니면 법을 적용하는 범위와 대상이 어느 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불법과 합법의 여부가 판가름 나는 그런 낮은 수준의 국가이든지 둘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만일 전자의 경우처럼 누구든지 법을 위반하고 그에 마땅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현재의 상황이라면 대한민국은 정말 지구촌에서 존경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조국으로 둔 이민자들도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 반대로 후자의 경우라면, 즉 힘을 가진 사람의 논리에 의해 합법인지 불법인지의 여부가 가려지는 경우가 현재의 상황이라면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일지 모르지만 정치적으로는 아직도 가난하고 천박한 후진국의 탈을 벗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에 와서 이 나라를 '내 나라'로 정하고 국적까지 바꾸며 살아온 지 20년, 30년 혹은 40-50년이 되신 분들, 혹은 그 이상이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고마운 것은 그 세월 동안 단 한 사람도 대통령 임기를 마친 후 감옥에서 삶을 보내고 있는 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더 거룩하거나 윤리적이어서가 아니라 대통령의 모자라는 부분을 대법원과 국회가 함께 보충해가며 국가를 세우고 다듬어왔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을 감옥에까지 보낼 수 있는 국가가 훌륭한 국가라기보다 대통령으로 하여금 법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입법부와 사법부가 견제하며 필요할 경우 합법적으로 제재를 하여 대통령의 임기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제 기능을 다 해주고,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물러났을 때 한 국가의 원로로 존경을 하는 정치문화가 가장 아름답고 부럽습니다. 바른 정치문화는 정치영역 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서도 권위에 대한 건강한 관점을 세워줍니다. 아버지와 직장상사의 정당한 권위조차도 우습게 여기는 우리 시대의 흐름에 오늘 정치권의 오염된 기류가 영향을 주고 있음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우리 조국에도 감옥에 더 이상 가지 않는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대통령, 해외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의 대통령만큼이나 존경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세워지는 날을 그려봅니다.

thechoi82@yahoo.com

(5면으로 계속)

'자원의 저주'에 '부패' 인재까지 겹쳤다

(1면에서 계속)

학자들은 베네수엘라를 '자원의 저주(resource curse)'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로 본다. 자원이 풍부한 국가일수록 정치적으로 불안해지는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로 영국의 경제지리학자 리처드 M. 오티가 처음 사용했다. 이 저주에 걸리면 석유 같은 자원 수출로 얻은 부가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고 일부 계층에 집중되면서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국민 삶의 질이 떨어진다.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자랑하는 국가이면서도 국민의 약 90%가 빈곤 속에서 살아가는 점에서 베네수엘라를 바로 그런 저주의 전형적인 예로 통한다. 베네수엘라의 지도자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석유라는 귀중한 자원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활용하지 못했다. 따라서 새 정부가 들어서다고 해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와 천연가스가 풍부한 나라 중 미국·캐나다·노르웨이 등 일부만 옹케도 '자원의

저주'를 면할 수 있었다. 석유를 대량 생산해서 수출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확고한 제도와 다각화된 경제를 구축한 덕분이다.

중남미의 여러 나라가 '자원의 저주'에 걸렸다. 포퓰리즘을 추구하는 방탕한 지도자들이 자원 수출로 벌어들인 부를 부절절하게 사용하면서 부패의 유혹에 빠졌기 때문이다. 그 결과 우익 독재 정권이 들어서서 국민을 탄압하기 시작했다. 중남미 외 다른 지역에서도 도둑 정치인과 독재자들이 급·구리·석유 같은 천연자원에서 발생한 부와 외국에서 제공 받은 원조를 이용해 권력을 유지했다.

미국의 테리 칼, 사드 더닝 같은 정치학자는 베네수엘라의 경우 1950년-1980년대 초 석유 수출로 벌어들인 돈이 민주주의를 지탱했다고 지적했다. 그들에 따르면 당시 베네수엘라 정부는 낮은 세금으로 엘리트층의 지지를 받고 관대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으로 빈민층으로부터 인기를 얻었다. 오일 머니가 독재 정권이든 민주

정권이든 권력을 잡은 정부를 떠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원유 가격이 하락하면 오일 머니가 줄어들면서 정치가 양극화된다. 낮은 석유 소득을 두고 부유층과 빈곤층이 서로 다투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런 국가가 한 가지 수출 상품과 극히 제한된 시장에 의존할 경우 취약성은 더 커진다.

2017년 베네수엘라의 수출 소득에서 원유 판매가 98%를 차지했다. 또 베네수엘라가 수출한 원유 중 거의 절반을 미국이 사들였다. 풍부한 오일 머니 덕분에 관대한 사회복지 프로그램도 도입한 베네수엘라는 수십 년 동안 호황을 누렸지만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제가 급격히 둔화되기 시작했다. 공급과잉에도 향후의 석유 소득을 담보로 얻은 거액의 차관을 상환해야 하는 시점과 경기 후퇴가 맞물렸다.

1974-79년 베네수엘라의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카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스 대통령이 1989년 재집권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유가가 떨어지면서 통화 가치가 하락했고, 빈곤률

이 높아졌으며, 외채와 공공 부채가 크게 늘어난 상태였다. 페레스 대통령은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긴축정책을 도입하면서 자본시장의 규제를 완화하고 휘발유 등 생수품의 가격 통제를 풀었다.

이런 조치는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그러면서 '카라카소(Caracazo)'라고 불린 민중 봉기가 일어나 수백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정치적 위기로 이어졌다. 페레스 대통령은 1992년 두 차례의 쿠데타 기도에서 살아남았지만 결국 그 다음해 공금 횡령 등의 부패 혐의로 탄핵된 뒤 사임했다.

경제적 어려움과 지배계층을 향한 대중의 분노를 이용해 분열을 부추기는 정치인들이 득세하기 시작했다. 1992년 페레스 대통령의 축출을 노린 첫 쿠데타 기도는 우고 차베스가 주도했다. 당시 육군 중령이었던 그는 자신이 "이번에는 실패했다"고 선언했다. 다음엔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경고였다.

3월 10일부터 서머타임 시작

시계 오전 2시를 3시로 돌려야

올해 서머타임은 3월 10일(주)부터 시작된다. 새벽 2시를 3시로 한 시간 빨라진다. 주말에배에 늦지 않도록 토요일 잠자리에 들기 전 한 시간을 돌려 놓아야 한다.

[알림] 본지 1720호가 인쇄소의 실수로 재작업을 했으나 또다시 실수가 발생, 4면과 13면이 빠지고 6면과 11면이 2번 인쇄됐습니다. 다시 또 인쇄 작업을 한다면 배달이 너무 지연된다는 판단 하에 일단 메일링 했으며 1720호에 인쇄되지 못한 4면과 13면은 1721호에 게재됐습니다. 이번 인쇄실수로 마지막 부분이 4면으로 계속된 "시론" 필자(은희곤 목사)와 4면과 13면 필자들께 깊이 사과드리며 아울러 애독자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담임목사 청빙

실리콘밸리 장로교회는 KAPC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에 소속된 캘리포니아 북가주 산호세에 위치한 교회로서 아름다운 자체 성전과 교육관을 갖춰 한인 성인예배 EM(영어권 예배)이 동시에 예배드리는 교회입니다. 지난 40년동안 영혼을 사랑하며 선교사명을 함께하는 신앙공동체로서 목사님께서 정년 은퇴하심으로 제 3대 담임목사님을 청빙하고자 합니다.

지원자격

- 신학대학원 (M. Div.)을 졸업하고 목사로 안수받으신 분으로 목양의 열정과 영혼구원을 위해 애쓰며 행동하는 신앙의 본을 보이실 분.
- KAPC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소속이거나 교단가입이 가능한 분.
- 목사안수 후 5년이상 담임목사, 선교사, 부목사로 헌신하신 분.
- 미국내 목회활동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구비서류

- 이력서 (최근 가족사진 첨부)
- 자기소개서 (성장배경, 신앙간증, 소명, 목회경험, 사모 및 가족소개)
- 학위증명서 (대학, 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 및 목사 안수증서)
- 목회자 2인의 추천서 (확인 할 수 있는 전화 및 e-mail 주소 기입)
- 최근 설교 2개 (CD/DVD 또는 동영상주소)

접수마감 : 2019년 5월 31일

제출처 e-mail이나 아래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청빙위원회 e-mail : yesokpositive@gmail.com
- 보내실 곳: **Silicon Valley Presbyterian Church (Attn : 청빙위원회)**
1721 DRY CREEK RD. SAN JOSE, CA 95125
- 문의 : 청빙위원회 정전의 장로 (Tel 408-262-0177)
- 제출된 서류는 청빙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실리콘밸리 장로교회 청빙위원회
Silicon Valley Presbyterian Church
www.svkc.org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190
	캐나다	\$110	남미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190	아프리카	\$19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 _____	목사 <input type="checkbox"/>
	영어 : _____	평신도 <input type="checkbox"/>
배달 주소	_____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Fax	() ()	() ()
배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nychpress@gmail.com

신청일자: 20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 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213)674-7982, (323)665-0009
E-mail: lachpress@gmail.com

■ N Y :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목장일기



김재열 목사
(뉴욕 센트럴교회)

그림 같은 예쁜 목장에서...

항상 교회의 목장이 무르익던 시절에 각 목장들을 순차적으로 방문했을 때마다, '우리 부부는 목장 기다리는 기쁨으로 살아요. 목장에서 기도하는 것마다 이뤄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참! 신기해요...

우리 목자님이 기도해 주시는 대로 다 이뤄졌어요. 우린 이 교회에 온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 수 없어요! 빛보다 우리 목자님을 만난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늘 쟁겨 전화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니 힘이 납

니다!' 자기 목자 칭찬에 담긴 목사도 안중에 없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변을 토하는 목원들의 순수함을 보면서 목사의 마음이 참 따뜻했었다.

또 다른 목장의 풍경이다. '목사님! 내 평생 이런 생일 축하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꽃다발도 몇 개를 받았는지 몰라요! 집집마다 선물을 갖고 와서 목자라고 생일 축하송을 불러주는데 정말 몸 둘 바를...' 목원들 칭찬을 듣고 있자니 이속 좁은 목사 은근히 시샘이 끓어올랐다. 그래도 기분은 참 좋았다. 그래! 바로 이런 목장이야!

난 소년 시절에 아지랑이 피워 오르는 푸른 초원의 목장 꿈을 자주 꾸곤 했다. 파란 하늘 뭉게 구름 아래 싱싱하게 하늘로 치솟은 포플러 울타리 안으로, 한없이 펼쳐진 초원 위에 한가롭게 풀 뜯는 소떼들과 토실토실한 양떼들... 잔잔한 연못에 엄마랑 한가로이 물장난하는 아기 오리들... 맨 날

봐도 자기 식구 아니라고 마구 달려와 덤비는 파수꾼 거위, 꼬리 흔들며 날쌔게 달려와 반기는 세파트는 든든한 보디가 드였다.

세월이 흐른 뒤 주님은 나에게 색다른 목장의 꿈을 주셨다. 신학 훈련 마치고 강도사가 되었다. 서울 잠실 결석촌 호수가 부근에 첫 개척교회를 시작했다. 목사 임직을 받은 바로 다음 첫 날 새벽이었다. 무릎 꿇고 엎드린 잠잠한 강단에 갑자기 눈부신 목장풍경이 펼쳐졌다. 어린 시절 꿈에 동경하던 바로 그 목장이 내 눈앞에 펼쳐졌다. 푸른 초장에 끝없이 넘실대는 소떼들과 토실토실한 양떼들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주님은 나에게 물으셨다. 목회 길 사양하고 뱅뱅 돌다 뒤늦게 돌아온 나에게 "김 목사야! 내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부끄럽고 죄스러워 침묵하는 나에게 주님은 말씀하셨다. "내 어린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오! 주님, 이 그림 같은 아름다운 목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 이 부르심! 이 감사의 눈물. 성령의 강물 따라 끝없이 뻗어 가게 하옵소서!' 39세의 어린 청년은 한없는 감사의 눈물을 감감한 강단에 쏟아내고 있었다. 시간의 구름들은 나를 송파를 떠나 드넓은 풍아일랜드 뉴욕 사만타 말 목장으로 이끄셨다.

오늘따라 훈풍까지 불어오는 포근한 오후. 목양실 창문 너머 넘실대는 오리 떼들이 나를 불러 들레 길로 나섰다. 고즈넉한 산책길에 바스락 바스락 소리 내는 대나무 숲길을 걷는다. 상록수 싱싱한 전나무 길을 지나 아늑한 언덕 위에 몰래 숨어 사랑하다 들킨 오리 한 쌍이 허겁지겁 날개 치며 도망한다.

아직은 겨울, 가벼운 옷차림으로 들레 길을 따라 주님과 산책길을 나섰다. 35년 전 보여주셨던 목장의 꿈이 눈앞에 있음을 보며 또 다시 감격했

다. 주님은 그림처럼 아름다운 목장을 같은 목장송파의 지하실을 떠나 30년의 시간을 따라 토론토를 거쳐서 풍아일랜드 뉴욕 사만타 목장에 터를 잡으셨네요. 그리고 사람으로는 이를 수 없는 거대한 주님의 목장을 주께서 일구셨네요...

참 나의 목자장 되신 주님! 끝까지 풍요로운 목장 만들어 주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주님의 양무리 잘 섬기는 꿈은 비단 나 한사람만의 꿈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는 모든 제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목양의 꿈입니다. 이제 곧 서서히 우리 앞에 다가오는 주님의 그림 같은 목장을 함께 만들어 가기를 오늘도 갈망한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떼에 마음을 두라"(잠27:23).

jykim47@gmail.com

푸/른/초/장

이지훈 목사
(아르헨티나 열린우리교회)



영어로 hostility입니다. 적대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랑 때문에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인간들에게 없는 의로움을 선명하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땅히 예수님을 환영해야 할 유대의 왕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오히려 적대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선포하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백성들을 속이는 자라고 비난했

먼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나 착한 행실이 아닙니다. 죄로 죽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이상 내 행위로 주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날 위해 죽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안에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 성령께서 내가 예수님께 속했다는 것을 확증해주시는 것

하고 교회 가서 또 부담스러운 말씀을 들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 갈등이 있다는 것은 아직 영혼의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영적으로 탈진했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또 다시 받아주시는 그리스도의 한없는 자비와 은혜를 힘입고 또 다시 세상의 유희와, 자신의 죄성과 맞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싸움을 준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일예배는 회개를 통한 영혼의 안식을 얻는 날이며,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또 한 주간을 살아낼 영적 충전을 받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초적인 시험에서 무너져 버린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의 오페나 날 향한 이유 없는 비난이나 조롱을 받을 때, 날 잘 알지도 모르면서 이런 저런 평가를 하고 반대하고 적대하는 것을 당할 때, 그 괴로움의 무게를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도행전21장 13절을 보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각오를 갖고 있어야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참으셨을 때, 사탄은 자신이 이긴 것으로 알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와 세상에서 경쟁하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포기하면, 세상은 우리가 졌다고 조롱하겠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이겼다고 손을 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넘어지고 지치고 맘 상했을 때, 죄인들을 위해 피 흘리기까지 참으시며 고난을 당하셨지만 마침내 승리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미치는 오늘의 고난과 징계를 견뎌냅니다. 우리 모두 마침내 이 영적 싸움의 최후 승리가 될 것을 믿으면서 힘을 얻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yedam0506@gmail.com

믿음-탈진을 이기는 능력

(히브리서 12장 3-5절)

신자는 믿는 사람을 신자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염려와 두려움과 절망을 이기는 사람을 신자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 신자가 끝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믿음의 founder, 곧 '설립자'이시고, 또한 믿음의 perfecter, 곧 '완성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결국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모든 신자들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믿음으로 사는 길을 배우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조상들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런 시험이 있어야만 하는 이유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세상 가운데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우리가 이처럼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반드시 찾아오는 위기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피곤하여 낙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다보면 누구나 지치고 피곤하고 마음이 상할 때가 있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데 이런 수고를 해서 뭐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쁨으로 했던 사역이었는데 전과 달리 마음에 기쁨이 없고 억지로, 마지못해서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바로 BURN OUT, 영적 탈진상태라고 표현합니다. 이 영적 탈진상태를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왜 이처럼 영적으로 탈진하는 상태가 찾아오는 것일까요?

먼저는 영적 전쟁을 육신의 능력으로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지쳐 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적인 순종을 한 것이 아니라 율법적인 순종을 하기 때문에 지쳐버리는 것입니다. 보통 몸과 마음이 지쳐서 우리가 병원을 찾아가면 영양제 주사를 놔준다거나 영양식을 먹고 꼭 쉬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나 믿음의 경주에서는 좀 쉬어도 된다는 허락이 없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탈진하는 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경주를 멈춰도 된다는 허락은 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말씀은 지쳐죽겠는데도 계속해서 봉사나 사역을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일은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경주는 하기 싫으면 그만두고 지치면 그만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멈추는 순간 사탄의 밥이 되기 때문이며,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사탄의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까지 낙담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율법적인 순종과 복음적인 순종이 어떻게 다른가?입니다.

율법적인 순종은 우리가 거

룩하게 살고 선한 일을 행하면 거기에 합당한 보상이나 반대급부가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표면적으로만 이해하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거역하면 저주 받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많이 구제

하고 봉사하면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복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귀를 얻는 거구나! 그렇다면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더 복 받고 더 칭찬과 영광을 받겠구나!" 그래서 더 많이 희생하면서 자기 의를 증명하고 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탈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적인 복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율법적인 순종을 하는 사람들은 만일 누군가가 그 사람의 희생과 수고를 몰라주거나 잘못을 지적하면 그걸 견뎌내지 못합니다. 알아주지 않는 사람 때문에 지치고 상처받고 낙담해서 하기 싫어 집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앉아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에 앉게 되기 쉽습니다.

셋째, 그렇다면 복음적인 순종이 무엇일까요?

복음적인 순종의 비밀이 3절에 나옵니다.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 곧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먼저 '거역'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순종하지 않은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거역'이라는 단어 ἀντιλογία는

입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라고 예수님을 부정한 자로 취급했습니다. 귀신들린 자를 치료하셨을 때는 귀신의 왕이라고 모함했고 성경에 대해서 탁월하게 해석하셨을 때는 그 래봤자 목수의 아들이라고 비웃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낙인찍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온갖 조롱과 모욕과 거짓과 핍박에 시달리시면서도 끝까지 참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면서 자기를 배신하고 대적한 모든 자들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고 죽으셨습니다. '다 이루셨다'는 말씀 안에는 그 모든 대적자들의 악한 죄악을 다 해결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자신을 대적하고 미워하고 핍박하고 침 뱉고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박는 모든 죄인들을 참으시는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적인 순종입니다.

넷째로, 우리는 어떻게 복음적인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드러나고 칭송받는 일에는 지갑을 정말 아낌없이 열지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사랑의 나눔에는 인색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부부는 그냥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파 자기의 안위를 내려놓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자

기가 가진 것들을 주님의 손 안에 놓으셨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자기들이 한 사랑의 나눔과 섬김보다 더 큰 보상을 받았 습니다. 바로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었습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요 가치입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나

를 버리고 내려놓는 기간입니다. 올해는 나의 가진 것들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섬기는 사랑의 나눔과 실천이, 격려와 배려가 가득한 '나의 사순절'이 되시면 어떨까요? "세상은 나를 통해 예수를 봅니다." pastor.eun@gmail.com

(1720호 시론 / 3면에서 계속) 말씀 따로 생활 따로,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등등의 종교 혼합주의, 편의주의적 신앙이 만연한 작금에, 그래도 말씀 듣고 실천해보려고 했던 이들 부부가 정말 마음에 와 닿습니다. 신앙은 생활입니다. 신앙과 생활

이 둘이 완전히 겹쳐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한번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간절함'은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는 '안타까움'은 나에게 절대적으로 살아있어야 합니다. 깨어있는 신앙의 경계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

파업을 가르치는 나라

한국 신문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파업을 가르치는 나라'라는 뉴스를 보았다. 서울 교육청이 공개한 교육 자료이다. 고등학생들에게 노동인권

자를 못하고 모두가 의인인 사람만 남아 있다라는 것이다. 참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닌 것이다.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노사 간의 의견이 갈릴 때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점을 함께 가르쳐야 하는 것이다. 결코 '투쟁과 파업'이 '협력'보다 먼저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존하기 위한 정치적 의식화의 과정을 자라나는 어린 영혼에도 주입시켜 소년당원에서 출발하여 평생 당원을 만들려는 의도에 다른 아닌 것 같다.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조국을 생각하면 마음 한켠 답답함을 지울 수 없다. 동일한 사건을 두고서도, 각자의 소견과 입장에 따라 다른 해석을 한다. 심지어 공정언론이어야 할 방송국이 생명 같은 공적 객관성을 상실하고 있다.

인가? 아니다. 실제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옛날 소련의 국기 색깔이 빨간 데서도 유래했으며, 중국의 국기도 붉은 깃발이고 공산 위성국가 대부분의 국기도 빨간색이 주조를 이루어서, 그 때문에 해방 이후엔 주로 공산주의자를 지칭하는 단어로 쓰였다는 것이다. 그것이 훨씬 더 광범위하게 쓰인 예가 아닌가?

의미를 선택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의 선택이지만 대통령의 의미 확장에 있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한마디로, 자신이 생각하고 말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 각주를 지나치게 오용한 예에 다른 아니다. 더군다나 대통령의 말이라고 할 때는 정말 의심하지 않을 수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저의 남편이 65세로 교회에서 장로로 섬기고 있는데, 회사로 출근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

A: 사람은 영혼과 육신을 가진 존재인데 영혼이 육신에서 분리되는 것을 사람들은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육신은 죽어 땅에 파묻히나 영혼은 천사가 와서 즉시 하늘로 인도해 줍니다.

그러므로 권사님의 남편은 죽어 그 영혼이 하늘의 예루살렘, 낙원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한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낙원에 있는 첫째 부활한 자들은 예수 재림 때 육체로 부활(둘째 부활)

계 있는 줄을 아나니"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천국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현재 지구 밖의 우주의 세계에 있습니까. 그곳은 지구와 아주 멀 수도 있고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4-6절은 천상의 천년왕국과 같은 천국의 계시입니다. 예수의 증거를 위해 죽임당한 순교자의 영혼과 신앙을 지킨 성도들의 영혼에 대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신약의 유명한 주석가인 윌리엄 헨드릭슨은 이 영혼들은 불과 몇년전만 해도 고난을 당하였지만 저기 더 좋은 곳,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동안 살면서 다스리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재 불신자의 영혼은 음부에서 정신적 지옥의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음부에서 정신적 고통을 당하다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그의 육체가 살아나서 영육이 불꽃 속에서 사멸에 들어갑니다(계20:14).

두 모양의 천년왕국은 지상(20:1-3)과 천국(4-6절), 사탄의 결박과 성도의 통치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앞서간 성도들이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스리며 왕 노릇 하고 있다는 것(계3:21절 참조)은 계시록의 환상의 기초입니다.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교회)

공동체의 성장과 부흥

-좋은 것을 먼저 배우고 채우십시오

이 아이들에게까지 그대로 전달된다는 사실에 엄청 놀랐다. 시대의 변했구나 하는 마음과 삼십년 세월의 연한이 필자를 뒷방 노인 같은 경직된 사고로 내몰았나 싶을 정도로 이해하기 어려운 마음도 들었다.

일의 선후와 때

노동인권에 담겨진 항목들이 틀린 내용인가? 아니다. 파업이 노동자의 기본권이라는 사실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는가? 맞는 말이다. 그러나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일의 선후와 때를 가리지 못한 채

가?

편향적인 분리의 잣대

그럼에도 이제는 고등학생 뿐 아니라, 중학생과 초등학교에게도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배움에도 때가 있지 않은가? 또한 아무리 옳음이 정당하여도 배움에는 선후가 있는 것이다. 세상에 악이 존재하지만 악을 경멸하기 전에 먼저 선과 옳음을 먼저 배우고 학습할 경우 그 선함으로 악을 이길 가능성이 더 있지 않겠는가? 물론 파업을 선악에 비하는 것이 논리적 비약일 수 있다.

상호 협력과 상생의 방법을 충분히 먼저 배운 후에 자연스럽게 극한 파업과 투쟁을 배워도 늦지 않을 것임에도, 일의 선후와 때를 가리지 않는 정권 지향형의 교육방법과 투쟁은 반드시 탄압하지 못한 열매를 맺고 말 것이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보수적인 청년들의 관점을 반공교육의 탓이라고 핑계하는 저들의 말속에서 의도를 읽을 수 있다.

계몽시키려 한다. 사회주의 국가 형태가 아니고서 어떻게 이것이 허용된다 말인가?

한국에서 30년 교수로 봉사하던 분의 이야기이다. 그는 더 이상 신문을 보지 않고, 보더라도 믿지를 않는다고 한다. 옳음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공공연한도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진실만을 전한다.

편향성과 왜곡

지난 삼일절에 대통령이 '빨갱이'란 단어를 두고서 확정적인 의미적용을 시도했다. 일분강점기 때 항일투쟁유격대를 지칭한 '파르티잔'에서 나왔다는 설에 근거해서, 자신들을 공격하는 이들을 친일파들의 저항으로 해석하며 상대방을 공격했다. 과연 그것만인가? 아주 적절하지 못한 연설이었다.

그 말들이 왜 그곳에서 필요했을까? 자신들이 가진 사실과 진실이 훨씬 더 소중하고 옳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본질을 잃어버리더라도 상관없다는 것이다. 더불어 과연 빨강다는 그 의미가 그것 하나뿐

없다. 대통령은 자신과 생각을 달리하는 이들 까지도, 그가 돌보고 보호해야 될 한 국민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 동의가 되지 못하니, 한쪽에서는 여전히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절규를 내뿜게 되고 다른 쪽에서는 열심히 자기 편 챙기지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본질과 여유

한국사회를 보면 예전의 아주 먹고 살기 어려웠을 때처럼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바쁘다. 조금의 여유도 없다. 함께 밥그릇 싸움을 하다가, 밥그릇을 얻어도 저 사람만 먹지 않으면 된다는 식이다. 더불어 같이 먹고 살 길이 있을 터인데, 상호인정을 하지 않는다. '누가 누가 못하나?'를 두고 경쟁하는 것 같다.

모든 공동체가 그러하다. 충분한 선과 옳음을 먼저 배워야 한다. 공동의 목표와 본질을 먼저 배워야지 거짓을 분별하며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 급할 이유가 없다. 교회나 사회공동체나 모두가 충분히 좋은 것, 선과 의와 옳음과 정의를 배운 후에 죄와 악이 지배하는 세상나라를 배워도 늦지 않다.

davidnjeon@yahoo.com

'자원의 저주'에 '부패' 인재까지 겹쳤다!

(3면에서 계속)

그의 말이 옳았다. 6년 뒤인 1998년 차베스는 대통령에 출마해 압승을 거뒀다. 차베스 대통령은 운이 좋았다. 유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서 집권 동안 최고조에 이르렀다. 2009년 세계 경제의 대침체에 따른 하락세가 단기간 발생했지만 전반적으로 고유가에 따른 석유 소득의 증가로 그는 높은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었다.

아울러 국영 석유-천연가스 회사 PDVSA(현재 미국의 제재 대상이다)의 구조조정을 통해

추가적인 소득을 올려 권력을 강화하고 석유 소득의 더 많은 부분을 국고에 쌓을 수 있었다. 차베스 대통령은 그 자금으로 수십 가지 사회안전망 프로그램(빈민층 의료혜택과 무상 교육 등)을 도입하고 대규모 인프라 건설 공사를 시작했으며 세계에 가장 저렴한 휘발유에 보조금을 대면서 대중의 확고한 지지를 얻었다. 그가 2002년 측근들을 PDVSA의 요직에 임명하자 군부에서 불만을 가진 인사들과 급진화 된 베네수엘라 상공회 지도자들이 쿠데타를 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그를 축출하는데 실패했다.

한편 베네수엘라 정부는 석유 산업에 신규 투자를 거의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부실하고 방만한 경영으로 일관했다. 석유 소득이 줄어들 것에 대비해 다른 수출 품목을 개발하는 노력도 게을리 했으며 석유 수출의 최대 고객으로 미국에 의존하는 데서 탈피하지도 못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산 석유 수입량이 크게 줄었지만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베네수엘라는 여전히 미국의 석유 수입원 3위를 유지했다. 차베스 대통령이 암 투병 중 2013년 58세의 나이로 사망하자

마두로가 그의 권좌를 물려받았다. 베네수엘라의 석유 생산이 크게 줄어든 시점이었다. 바로 1년 뒤 국제 유가가 폭락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마두로 대통령의 인기도 땅에 떨어졌다. 그러나 지난해 그는 국제 선거감시단이 참관하지 않은 논란 많은 선거를 통해 재선에 성공했다. 투표를 보이콧하지는 운동이 벌어졌고, 야당 후보 탄압과 개표 조작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선거였다. 마두로 대통령이 유가 하락 시기에 베네수엘라를 통치해야 하는 것도 불운이지만 그의 석유 산업 관리 능력도 차베스보다

훨씬 떨어지는 것으로 판명됐다. 그는 군 장성 출신인 마누엘 케베도를 석유장관에 앉히는 등 군부의 측근들을 석유 산업 경영에 발탁했다. 마두로의 부상 이래 PDVSA 임원 다수가 숙청됐다. 하급 직원들은 현재 받는 임금으로는 통근 비용을 낼 수 없어서 집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상가상 부패도 기승을 부린다.

이처럼 사회적·경제적 격변이 일어나면서 서민 중 다수도 마두로 대통령에게서 등을 돌렸다. 혼란이 커지면서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야권 지도자인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을 임시 대

통령'으로 공식 인정했다. 과이도의 의장이 마두로 대통령의 축출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의 험난한 역사를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선 현재 위치에 처한 지도자를 쫓아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듯하다.

미래의 지도자는 국민 통합으로 분열의 시대를 끝내고 '자원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춰야 한다. 그대야 베네수엘라는 석유로 얻는 부를 통해 사회적·경제적 안정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종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파키스탄의 힌드코(HINDKO)



파키스탄의 인구는 1억4천5백만명에 달하며, 편자비족, 파탄족, 신디족, 우르드족 등을 포함해 90개 이상의 종족이 이 땅에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민족이 이 땅에 살게 된 큰 이유는 역사적으로 이 지역이 끊임없이 외부인의 침략을 당했던 지역이기 때문이다. 드라비다족, 인도-아리아인족, 훈족, 그리스인, 스키타이인, 아랍인, 몽골인, 페르시아인, 아프가니스탄 등과 같은 종족들이 파키스탄에 속한 종족들이다.

파키스탄은 문화적, 언어적, 지리적으로 엄청난 다양성을 가진 땅이다. 파키스탄의 인구는 1억4천5백만명에 달하며, 편자비족, 파탄족, 신디족, 우르드족 등을 포함해 90개 이상의 종족이 이 땅에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민족이 이 땅에 살게 된 큰 이유는 역사적으로 이 지역이 끊임없이 외부인의 침략을 당했던 지역이기 때문이다. 드라비다족, 인도-아리아인족, 훈족, 그리스인, 스키타이인, 아랍인, 몽골인, 페르시아인, 아프가니스탄 등과 같은 종족들이 파키스탄에 속한 종족들이다.

삶의 모습

파키스탄 전체 땅의 사분의 일만이 농사짓기에 적합하기는 하지만, 농업이 국가 경제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이들 대부분은 농부

들이다. 안타깝게도 농부가 농업생산을 증가시킨다 해도 정작 자신에게 돌아오는 보상은 거의 없게 만드는 소작농 제도로 인해 농업생산량이 늘었다. 소작농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토지개혁과 누진과세를 도입했다.

1960년대와 70년대에 발전된 관개용수와 비료 사용을 통해 밀 생산이 극적으로 증가될 수 있었다. 이러한 밀 생산의 증가로 파키스탄은 농업부문에 있어 자급자족하게 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주식으로 쓰이는 농산물이 이따금씩 부족할 때가 있다.

밀이 최대 작물이며 사탕수수도 많이 재배한다. 쌀과 면화는 최대 수출작물이다. 또한, 대부분의 농부들은 염소, 양, 소, 물소, 낙타 등과 같은 가금들을 키운다. 그러나 가축들을 잘 먹이지 못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고기와 우유 생산은 적은 편이다.

힌드코 사람들은 대체로 대가족 단위로 생활한다. 가족 구조는 매우 가부장적이며 남성 위주다. 사회에서 여성들

의 자리는 매우 부족하며, 집안의 허드렛일을 하고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여성들에게 기대되는 것이다.

부유한 농부와 지주나 도시에 사는 중산층의 가정에서는 여성들이 집안에 틀어박혀 남의 눈에 띄지 않는 생활을 한다. 집 밖으로 외출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외출을 할 때에는 자신을 베일로 가려야만 한다. 부녀자를 남의 눈에 띄지 않게 하는 관습인 "푸르다(purdah)"를 지키는 집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분리된 공간이 있다. 남성의 공간인 "마르다나(mardanah)"는 보통 가옥의 전면에 위치해 방문자들이 여성들의 공간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한다. 여성들은 자신들의 공간인 자나나(zanana)에서만 생활한다. 가난한 농부들의 경우에는 여성들이 농장 일을 도와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함께 밖에 나가 여성이 일을 하기도 한다.

사회조직은 사회적 계층이나 카스트 계급보다는 혈족관

계에 의해 이뤄진다. "베라다리"(Beradari, 남성을 통한 가계활동)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힌드코족은 일반적으로 씨족 내에서 결혼을 많이 하며 사촌간의 결혼을 선호한다. 혈통 안에서의 모든 논의와 결정은 씨족의 원로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원로회는 혈통의 정치적 대표기구로도 기능을 수행한다.

신앙

파키스탄 인구가 97%가 스스로를 무슬림이라고 고백한다. 나머지 3%에 힌두교, 기독교, 시크교(힌두교와 이슬람교의 혼합종교), 불교가 포함된다. 파키스탄 헌법은 파키스탄이 이슬람 국가임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며 종교적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파키스탄 내에서 기독교인들은 많은 박해를 받고 있다. 힌드코족의 99%가 무슬림이며, 약 1%가 기독교인이다.

필요로 하는 것들

파키스탄 국민 중 글을 읽을 수 있는 성인은 35%뿐이다.

헌법이 초등교육의 자유를 약속하고는 있지만 교육시설과 교사 부족으로 실제로 교육받는 아동들은 절반 미만이다.

의료 시설, 의약품, 및 전문 의료 인력도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고 폐수 처리 및 배수 시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전 인구의 8% 미만이다. 많은 사람들이 깨끗하지 않은 물과 영양실조로 인해 건강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힌드코족의 영적 필요 또한 매우 많다. 현재 이 두 힌드코 종족들을 위해 사역하는 선교단체가 있지만 힌드코 사람들 중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1% 미만이다.

크리스천 교사, 의사, 간호사, 치과 의사, 인도적 구호사업가 등이 힌드코족의 육체적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 것이다. 힌드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는 선교적 노력, 전도를 위한 자료, 헌신된 일꾼들이 더욱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이들을 영적으로 묶고 있는 견고한 진을 파하는 데는 종보기도가 필요하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美·北 핵담판 결렬... 'α'가 달랐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28일 어떤 합의도 도출하지 못한 채 결렬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영변 핵시설 폐기의 대가로 대북 제재의 전면 해제를 요구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플러스 알파'를 주문하며 거부했다.

북한 비핵화의 이정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던 '하노이 공동선언' 채택이 불발되면서 북·미 3자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도 중대 기로를 맞았다. 영변 핵시설 폐기 및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 제시라는 북한의 선제 조치와 종전선언·연락사무소 설치 등 미국의 상응조치를 맞교환하는 비핵화 '빅딜'은 좌초됐다. 이에 따라 비핵화 협상은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당분간 공전되는 등 한반도 안보 정세는 한층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계속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하며 대화의 끈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1박2일 일정의 하노이 정상회담 마지막 날인 28일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에서 다시 만났다. 두 정상은 확대 정상회담을 이어가던 오후 1시20분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회의를 나눴다.

트럼프 대통령은 숙소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돌아와 가진 기자회견에서 "제재 완화·해제가 쟁점이었다"면서 "북한은 전체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했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모든 것을 폐기할 의지가 있어 보였다"면서 "그러나 북한은 (그 대가로) 모든 제재의 해제를 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우리가 원하는 비핵화를 해야 우리도 제재를 완화·해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문에 서명을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면서 "공동선언문은 준비가 돼 있었지만 일을 빨리 하기 보다 옳은 일을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또 "만족스럽지 않은 합의를 하느니,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합의를 안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생산적인 회담이었다"면서도 "우리가 뛰지 않고 걸어야 하는 시점"이라며 속도조절론을 거듭 거론했다.

미국은 영변 핵시설 외에 비공개 핵시설 폐기 등 '플러스 알파'를 북한에 요구했으나 북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지 못했다. 기자회견에 배석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미사일도 빠져있고, 핵탄두·무기 체계도 빠져 있어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의 비공개 핵시설을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며 "(북한은) 핵을 다 포기해야 한다"고 제재 해제 기준점을 명확히 했다. 영변 핵시설 폐기라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 간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하노이 정상회담은 빈손으로 끝

맺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빨리 열릴 수도 있고 오랫동안 안 열릴 수도 있다. 장담은 못한다"면서도 "김 위원장이 '핵·미사일 실험은 이제 그만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협상 결렬로 인한 대북 추가 제재 가능성과 관련해선 "더 강화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과신' -김정은 '영변 과대평가'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나친 자신감과 판단 착오가 2차 북·미 정상회담 실패를 불러왔다는 분석이 잇달아 제기됐다.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부터 이미 불길한 징후가 여러 보였음에도 두 정상이 이를 무시하고 회담을 밀어붙인 결과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만의 '협상의 기술'로 김 위원장의 핵 포기를 받아낼 것으로 믿었다. 김 위원장 역시 영변 핵시설 폐기 카드의 가치를 과대평가했던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첫날인 지난달 27일 베트남 하노이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에서 김 위원장과 만찬을 하며 '그랜드 바진(일괄타결)'을 제안했다가 뉴욕타임스(NYT)가 2일 보도했다. 북한이 핵무기와 핵물질, 핵시설을 포기하면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를 풀어준다는 내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능한 협상가로서 자신이 '통 큰 제안(a proposal to go big)'을 관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고 한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이를 즉각 거절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판단을 한 배경에는 김 위원장과의 친분 관계에 대한 믿음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핵심 참모진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괄타결 아이디어가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조언했다. 백악관 참모들 사이에선 2차 미·북 정상회담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단계적 비핵화 접근법이 더욱 현실적이라는 전방도 나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친서를 보여주며 두 정상이 친밀한 관계임을 강조했다. 이 때문에 참모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김 위원장에게도 과실이 있다. 영변 핵시설 폐기만 내놓으면 핵심 대북 제재 해제를 약속 받고 돌아갈 수 있다는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영변 핵시설을 대가로 2016-2017년 도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결의 5건을 해제해 달라는 북측 제안은 실무협상 단계에서 제기됐다.

미국 측 실무진은 제재 해제가 실제로 이뤄지면 북한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이익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낡은 영변 핵시설 폐기 카드를 받는 대신 북한에 내줄 카드로는 값어치가 너무 높았다. 미국 측이 영변 핵시설에 추가로 '플러스 알파'를 줄곤 요구했던 것은 이 때문이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실무협상 결과 보고를

받고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 담판에서 돌파구를 만들 수 있다고 기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미·북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은 CNN방송에 "김 위원장은 '플랜B'를 준비하지 않았다"면서 "그는 아주 자신 있게 하노이에 왔고 공동선언문에 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고 말했다.

NYT에 따르면 북한 측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한 사람은 폼페이오 장관이었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지내 북한 핵개발 프로그램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은 비밀 지하 핵시설을 여럿 운용하고 있다. 영변 핵시설만 합의하고 돌아가면 젊은 지도자에게 속았다는 허풍을 받는 다"고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성공회 '일요일 예배의무' 규정 415년 만에 완화

영국(England) 성공회가 일요일 예배 의무 규정을 400년 만에 폐지했다.



지난달 21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영국성공회 총회에서는 모든 교회에서 주일 성찬례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무사항을 완화하는 결의가 이뤄졌다. 앞으로 사제들은 자신이 맡은 모든 교회가 아닌 한 곳 이상의 교회에서 주일 성찬례를 하면 된다.

이는 최근 성직자와 성도 수가 줄어들며 성직자 한 명이 많게는 10곳 넘는 교회를 담당하는 일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수정안은 주교와 성직자 등 230명으로부터 찬성표를 받았다. 평신도 2명만이 반대표를 던졌다.

양권석 성공회대(성서해석학) 교수는 "1990년대부터 영국 링컨과 우스터 지역은 이미 성직자 한 명이 10여 곳 지교회의 절반은 일요일에, 절반은 토요일에 성찬례를 집전하고 있었다"며 "물리적으로 주일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에 맞춰 교회법을 현실화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1604년 영국 성공회의 '개논법(1604 Canons·교회법)' 13조에 "영국 교회의 모든 구성원은 일요일을 주일로 지켜야 한다"는 조항이 생겨난 이래로 415년 만에 의무 규정이 완화된 셈이다. 규정 완화를 제안한 피트 브로드벤트 영국 윌레스턴 주교는 "이번 변화는 사제들을 정직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모자' 금지하자 학교 고발한 여고생

미국의 10대 소녀가 교내에서 '트럼프 모자'를 쓰지 못하게 한다며 학교를 고소했다.



CBS뉴스는 캘리포니아주 프레즈노에 있는 클로비스노스 공립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매디 몰러가 학교 내에서 트럼프 모자를 쓰지 못하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다고 22일 보도했다.

트럼프 모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선 슬로건이었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MAGA)가 새

겨진 모자다. 몰러는 학교가 교내에서 MAGA 모자를 쓰지 못하게 했다며 수정헌법 1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몰러는 지난 20일 학교에서 이 모자를 쓰려고 했으나 "교내에서는 특정 로고가 담긴 의류는 착용할 수 없다"는 학교 측 전언에 따라 해당 모자를 쓰지 못했다.

몰러는 "그런 것 저 우리나라 대통령을 의미할 뿐"이라며 "애국자로서 내 나라에 자부심을 보이려고 하는 게 어째서 부적절하냐"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MAGA 모자의 착용을 금지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정치적 태도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다"며 "단지 캠퍼스 내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고 해명했다. 이어 "학교의 로고나 학교 색깔을 사용한 모자만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몰러는 "학교 색깔의 MAGA 모자를 쓸 수 있냐고 물었는데 '그럴 수 없다'는 말이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클로비스 커뮤니케이션 책임자인 켈리 애반츠는 "우리가 제시하는 복장 규정의 핵심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안전함을 느끼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산만함을 없애는 것"이라고 말했다.

몰러가 주장하는 수정헌법 1조는 '의회가 종교를 만들거나,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금지하거나, 발언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그리고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는 내용의 헌법 수정안이다.

다만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입는지, 무엇을 말하는지를 수정헌법 1조로 정의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많다.

온라인매체 폭스는 MAGA 모자는 미국 청소년들에게 정치적 수사라기보다 반항의 의미를 더 크게 갖고 있다고 전했다.

힐러리 클린턴 "대선 불출마...정계는 안 떠냐"

2016년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71) 전 국무장관이 2020년 대선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공식 선언했다.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4일 뉴욕 지역방송 '뉴스12'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대선에 출마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계속해서 일하고 얘기하며, 내가 믿는 바에 대해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뉴욕 주지사나 시장 등 선출직 공무원 후보 출마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면서 "그러나 뉴욕에 사는 것을 사랑한다. 8년간 상원의원으로 일할 기회를 가졌던 것에 감사하다"고 답했다. 클린턴 전 장관은 남편 빌 클린턴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말인 2000년 뉴욕주 상원의원으로 선출돼 정치인으로 공식 입문했으며, 지금도 뉴욕에서 거주하고 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지난 2016년 대선에서 당선에 유력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패배했다. 이후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직간접적으로 내비쳤지만 언론은 클린턴 전 장관의 재도전 가능성을 잇달아 보도했다. 클린턴 전 장관이 출마 여부를 부인하면서도 대통령직에 대한 미련이 남은 듯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가 자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이다. 일반 계시, 즉 창조된 세계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나타내신다. 그리고 특별 계시, 즉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자신을 알게 하셨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기도란 무엇인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일이다. 기도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된다. 하나님을 향한 길이 열려진 것을 인식하고, 수시로 그에게 나아간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신을 찾으며 다가오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므로 초대교회가 세워진 이후, 기도는 공적 예배와 개인 신앙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다.

교회 역사의 흐름 속에 다양한 전통이 세워졌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도에 관한 것이다. 즉, 기도의 내용과 실천 방법에 대한 다른 견해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다. 현대교회도 예외가 아니다. 대표적인 예를 한 가지 들자면, 큰 소리를 내는 통성기도와 입을 열어 소리 없는 침묵기도 사이의 갈등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하는 의도는 동일하지만 자신의 기도 형식이 옳다고 확신하는 만큼 다른 방법에 대하여 쉽게 정죄하는 형편이다.

초대교회에 시작된 공동 수도생활은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을 중시하며 출발되었다. 특히 수도회를 창건하고 규칙을 만들어 후대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누르시아의 베네딕트(Benedict of Nursia, 480-543)는 수도사들의 경건생활을 위해 렉치오 디비나(Lectio Divina, 거룩한 독서)를 정착시켰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들은 먼저 성경을 주의 깊게 읽었는데,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집중하여 소리 내어 읽었으며 마음으로 받아들여려고 노력하였다. 그 다음에는, 자신이 마음에 담은 말씀을 묵상하였다. 따로 시간을 정하여 읽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의미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성찰로 얻어진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었다.

이미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중세교회 수도원의 역사는 부의 축적 및 로마교황청과의 정치적 관계 속에서 생겨난 타락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룬다. 시도가 출현하여 무너진 전통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였지만, 이전의 형태로서의 경건생활을 회복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다. 더욱이 탁발수도회의 출현으로 인하여 성경을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변화

가 되었다. 마음으로 읽는 것을 강조하던 과거의 수도원 전통이 서서히 사라졌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던 전통을 대신하여 이성적 철학을 중시하는 학문적인 접근방법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중세교회 안에서 스콜라신학이 발전되고 그 영역이 넓어지면서 교회의 전통과 의식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목말라하는 자들이 생겨났다. 차갑고 메마른 신학에 대한 반작용은 어느 시대에서나 있었지만 워낙 막강한 힘을 지녔던 중세교

테레사의 주된 관심은 기도의 체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다. 결국 그녀가 찾은 답은 이전의 묵상기도와 다른 관상기도였다. 묵상기도는 우리의 생각을 사용한다. 성경을 읽고 암송하면서 사고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 집중하며 그에게 나아가는 방법이다.

관상기도는 묵상과 달리 자신의 생각을 넘어 자신을 철저히 비우는 것을 중요시 한다. 관상기도는 관상에 이르는 길이며, 관상이 최종 목표이다. 그렇다면 관상이란 무엇인가? 성

를 넘은 신비한 경지에서 기도를 드리게 된다. 이때 정적의 기도로 전적으로 수동적 자세를 취하게 되는데, 그 다음 단계가 하나님과 일치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성도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믿음의 주가 되심의 신비한 변화를 체험하게 된다.

자아를 잃어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상태에 이르러 침묵하며 머무르는 경험은 곧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신비한 경험을 궁극적 목적으로 삼고 있다. 테레사의 관상기도는 신비주의의 극치를 이룬다.

대해 신성한 빛을 경험하는 것은 능동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아무리 하나님과 교제를 원하여도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방법과 한계 안에서 경험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관상을 통해 경험하는 신성한 빛은 발람이 언급하듯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라 그 자체가 창조되지 않은 하나님의 본성이다. 즉, 빛을 경험하는 것은 분명 신비 속에 하나님 자신을 경험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존재 자체 보다는 그의 생명과 만나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을 공유하고 참여하는 신비한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아무쪼록 14세기 중반 이후 그리스정교회는 발람이 아닌 팔라마스의 견해를 수용하였다. 이후로 동방교회는 서방교회와 매우 다른 신앙의 길을 선택하여 신성한 빛에 대한 경험을 중심으로 신비주의적 신앙이 발전하게 되었다.

서방교회에서 마이스터 에크하르트(Meister Eckhart, 1260-1328)의 신비주의를 이단으로 정죄하였지만, 그 후로도 그로부터 영향을 받은 자들이 그의 사상을 계승하고 발전시켰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니콜라우스 쿠자누스(Nicholas of Cusanus, 1401-1464)이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봄에 대하여'라는 작품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은 먼저 자신에 대한 자각을 포기하고 자신을 무지한 자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에크하르트로부터 영향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이성적인 수고를 초월한 순수한 신비적인 연합을 가능하게 한다.

쿠자누스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형된다"는 에크하르트의 신비주의 전통을 따랐다. 그러나 그가 교회로부터 이단 혐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용어 사용에 주의를 기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봄, 즉 관상을 통해 기도자가 최고의 영적 경험인 "하나님을 닮는다"라고 표현하였다.

중세교회에 나타난 신비주의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 주위에 영적 유혹 거리가 널려 있다는 경각심을 갖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관상주의자들의 주장과 같이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을 열어놓은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간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과 교제를 우선순위를 삼고 지속하도록 하라.

covenantcho@yahoo.com

중세교회 1000년 - 어둠에 잠긴 구속역사의 현장 (29)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관상주의 전통-동방과 서방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아빌라의 테레사의 관상기도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중세교회의 역사를 뒤돌아 볼 때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이미 14세기에 관상주의 논쟁이 동방교회에서 벌어진 바 있다. 그 중심에 두 사람, 즉 세미나라 사람 발람(Barlaam of Seminara, 1290-1349)과 관상주의자들의 기도법과 친숙했던 그레고리우스 팔라마스(Gregory Palamas,

회를 향해 어떤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었다. 그 결과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던 자들 중에 신비주의적인 신앙에 마음을 쏟는 자들이 생겨났다. 영적 갈증에서 시작된 신비주의에 입각한 기도가, 현대교회에 끼친 부정적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분의 역사를 비평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관상 기도-아빌라의 테레사

중세교회 말기에 신비주의적 체험

경에는 관상이란 용어가 없다. 그러나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초대교회 교부들 중에 창조물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찾는 행위에 대해 '자연 관상'이란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자신을 드러내신 자연 안에 계신 하나님을 관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이 신비한 일을 통해 기도자의 마음이 정화되고 금욕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그들의 주된 관심은 어떻게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그와 하나가 되느냐에 있었다.

어원적으로 관상이란 실제의 내면을 바라본다는 의미이다. 즉 관상은

영적갈증에서 시작된 신비주의 기도, 현대교회에 부정적 영향 관상은 기도의 과정 걸쳐 하나님 만나 머무르는 신비한 체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을 중시하였던 아빌라의 테레사(Teresa of Avila, 1515-1582)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녀는 14세에 어거스틴 수녀원에서 교육을 받은 신앙인이었다. 19세가 되는 해에 수녀가 된 후 정성을 다해 환자를 돌보다가 자신이 병에 걸리게 되었는데, 병중에서 황홀감을 경험하게 되었다. 병에서 회복된 뒤 그녀는 성경과 교부의 글을 읽는 일에 집중하였으며, 신비한 체험과 환상을 경험한 뒤 과거와 같은 엄격한 수도생활의 규율에 입각하여 운영되는 수도원을 세우려는 계획을 세웠다. 결국 로마교황청의 허락을 받아 성 요셉 수녀원을 시작으로 다수의 남, 녀 수도원을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기도의 과정을 걸쳐 하나님을 만나 그와 함께 머무르는 신비한 체험이다. 테레사가 강조하였던 관상기도의 여정이, 그녀가 저술한 '영혼의 성'에 잘 밝혀져 있다.

가장 처음에는 입술로 기도한다. 이 기도를 통해 자신 마음에 담겨져 있는 소원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 다음 이성을 사용하는 묵상인데, 곧 이어서 자발적으로 사랑이 우리나라로 하게하는 정감의 기도가 따른다. 그 후에 자신을 비우는 기도가 시작된다.

먼저 능동적으로 사랑으로 채워진 단순한 마음을 갖는 기도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초자연적인 주부적(infused) 관상 기도가 가능하게 된다. 이 정도가 되면 인간의 인식 세계

1296-1359)가 있었다.

두 사람간의 논쟁은 약 20년 동안 지속되었다. 발람이 지적하는 관상주의자들의 치명적인 오류는 그들이 신성한 빛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빛이 곧 하나님 자체라고 간주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빛으로 경험하는 것과, 나아가서 그들이 주장하는 몸의 자세와 호흡법이 매우 신비주의적이라는 것이었다. 이미 주어진 성경과 교회의 성례전을 통해 하나님을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으며, 교회가 중추적으로 이 역할을 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팔라마스는 발람의 지적에

Worldwide church directory with logos and contact info for various denominations like Catholic, Protestant, and others.

성경도 신앙(73) 교회와 국가



이윤석 목사 (NY 부트클린 제일교회)

4)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에 대해 가지는 결론적인 관점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국가에 대해 가지는 관계는 고작해야 잠시 뿐임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세상에 애착을 갖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나그네와 순례자로서 함께 길을 가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성경은 결코 세상은 놀라게 개혁되고 온전하게 된다고 말하지 않는다.

비 그리스도인들은 이생을 위해 살고 있으며 오직 이 세상만 생각하고 사는 존재들이다. 그들은 국가와 그들의 정당에 대해서 흥분되어 있다. 국가가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결국 그들은 거짓된 낙관주의로 가득 차 살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언젠가 지상에 눈에 보이게 나타날 그 나라에 속해 있으며, 우리는 바로 이 시간도 그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위에 있는 권세들을 세우셨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인 나도 그들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런 조건들 속에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세상과 그 세상 속에서 사는 어떤 한계 내에 지키려고 애를 써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애착을 갖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개혁되고 놀라게 온전하게 된다고 믿지 않는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음을 그리스도인들은 잘 알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형태로 드러나는 때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에 대해 가진 관계는 어떤 의미에서 초연한 것이다. 그들은 국가 안에 존재하고 있으며 국가 속에서 길을 잃거나 그 속에 빠져들어가 그 국가 때문에 흥분하거나 감격하거나 그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다들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궁극적으로 하늘에 있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다투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국가에 대해 사랑하고 아끼면서 참여하지만, 영원한 것이 아님을 순간순간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 오늘도 더욱 성경적으로 성경의 인도를 좇아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면서 말씀의 원리를 적용하며 우리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

6. 국가가 일으키는 전쟁(칼)에 대한 관점

1) 국가가 행하는 사형제도

국가는 생명을 취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나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여기서 칼을 사용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고 칼이 국가의 권위의 최종적인 표시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것은 다스리는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면 국가가 생명을 취할 권세도 가지고 있음이 명백하며 이것은

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다(롬 13:4). 국가가 그 칼을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국가에게 주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구약 성경 전체의 해답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에 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장하시는 오직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취할 권리를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다. 바로 그 점에서 살인자의 극악성이 드러나는 것이다. 살인이 매우 특별한 범죄가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 다른 사람들의 물건이나 돈을 도적질하는 것도 나쁜 범죄이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것은 전혀 다른 영역의 문제이다. 사람의 생명은 그 사람이 가진 소유 가운데 가장 보배로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셨으므로 하나님만이 그 생명을 취할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

사형판결과 같은 것은 생명의 신성함을 지속시키고 강조하고 확증하기 위해서 의도된 것이다. 만일 그런 사형판결에 복수심의 요소가 들어있다면 잘못된 것이다. 사형판결의 목적은 "네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했으니 나도 너의 생명을 취한다" 라고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사형판결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그 주권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다. 누구든지 그

기독교인은 순례자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사는 사람들 사형 판결 목적은 하나님께서 생명 주관자이심을 옹호하기 위함

하나님께서 국가에게 허락하신 권세이다. 이런 관점에 반대하여 일어난 국가들 중에는 사형 제도를 폐지한 국가들도 있다. 그러면 이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어떠한가? 보편적으로 살인한 사람들의 경우에도 사형 형벌을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형반대론의 경우는 어떠한가? 구약성경의 경우가 그 답변을 잘 보여준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떤 종류의 사람들은 죽이라고 명령하셨다. 심지어 어떤 족속들은 완전히 멸절하라고 명령하기도 하셨다. 물론 수세기에 걸쳐서 성도들은 이런 원리에 따라 행동했다. 여러 나라의 육군이나 해군에 매우 성직자다운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아주 뛰어난 그리스도인들이었다.

청교도 시대의 장군 올리버 크롬웰은 매우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들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항상 그릇되다'는 식의 진술에 대해 대답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 어떻게 적용할까? 그런 모든 계명들이 다 개인에게 주어지고 있다. 개인이 사람을 죽이지 말아야 한다. 개인은 일편 백도 돌려야 한다. 심계명이나 산상설교의 가르침을 국가가 행하는 사형제도에 인용하는 것은 이 부분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로마서 13장은 국가가 칼을 사용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말한다. 국가가 어떻게 해서 칼을 가지게 되었는가? 국가가 하나님을 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국가

경계를 벗어나면 자신의 생명도 박탈당해야 함을 말해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형 판결을 이행하는 것은 생명의 신성성과 엄숙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다.

보통 사형 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휴머니스트들이나 무신론자들인 경우가 많다. 보편적으로 그들은 '신도덕성(new morality)'이란 것을 위하여 과격한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며 동성애를 허락하는 법률을 통과시키는데 성공했던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자기들의 일반적인 동일안 원리에 기초하여 행동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인간들에 관한 그들의 관점은 주로 동물적이다. 그들은 생명의 신성성과 엄숙성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가 되심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이 세상 신'에 가리워 눈이 먼 자들이 많다. 그들은 인간주의자들로써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사람을 끝을 내고, 다른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로마서 13장에서 국가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다(4절)"는 말씀은 구약의 교훈과 일치해 이루고 있다. 구약의 교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원리를 사법적인 방식으로 다른 족속들에 대해서도 강화시키라고 명령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younsuklee@hotmail.com

일상칼럼

변명해 박사

(아주사과시립대학교 교수)

이웃 사촌

예수님은 이웃사랑하기를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렇지만 이웃사랑은 자연스런 관계 되는 것만은 아닌 듯 하다.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낯고 하기도 하고 이웃사촌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웃이 발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도 있기 때문이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내 곁에 좋은 이웃들을 많이 주셨다. 옛날 교회 친구, 신학교 친구 등 기쁜 일, 어려운 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웃들이 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도 좋은 분들이어서 감사하다.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이사는 지도 올해로 심옥년됐다. 그동안 이웃들이 많이 바뀌었지만 이사 올 때 우리 집 양 옆에 살던 사람들은 여전히 그대로다. 오른 쪽에 사는 중국아저씨네도 왼쪽 인도부부도 참 좋은 사람들이다.

중국 아저씨는 쓰레기가 나간 날 내가 집에 늦게 들어오면 쓰레기통을 뒤뜰에 넣어주기도 한다. 인도 분의 아내는 밤에 전화해서 내 차 창문이 내려진 채 있다고 알려주기도 하고 차고 문이 열려 있다고 말해주기도 한다. 갑박 갑박 정신없는 나를 챙겨주는 것이다. 최근에도 이웃의 고마움을 새삼 느낀 일이 있었다.

우리 집은 아침에 주로 군고구마를 먹는다. 몇 주 전 아침에도 차고에 있는 고구마를 가져다 갔는데 고구마 껍질이 잘라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쥐가 잡아 먹은 것이었다. 그 며칠 전 밤에 차고 문 내리는 것을 잊어버려서 늦게야 닫은 적이 있는데 아마 그 때 쥐가 들어온 것 같았다. 아침에 누웠던 잔잔한 은혜가 다 사라지고 마음이 완전 비상사태로 돌진하게 되었다.

쥐를 잡으려면 우선은 차고 한 쪽에 쌓여있는 도넛이던 할 물건들부터 치워야 할 것 같았다. 옷가지 모아둔 것 등을 차에 싣다가 보니 이곳 저곳 쥐똥 자국이 있었다. 동네에서 점심식사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점심을 먹고 차에 실은 물건들을 도넛이던 센터에 갖다 주고 집에 오는 길에 쥐를 처리할 뭇을 사든지 하기로 했다.

약속시간에 맞춰서 나가려고 차를 움직이는데 차가 굽히는 소리가 났다. 차고 안에는 차를 굽을 것이 없는데 이상하다 싶어서 차를 앞으로 움직여도 소리가 나고 뒤로 움직여도 소리가 났다. 내려서 살펴보니 차 엔진 옆에 긴 철관이 끼어있었다. 도넛이던 할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사용하지 않는 철제 정리장의 선반 하나가 떨어져 차 밑에 있는 것을 모르고 차를 움직인 것이었다. 차를 앞으로 움직이는 바람에 철관이 차체에 딱 끼어버렸다. 점심약속 시간은 다가와 오는데 차를 움직일 수가 없으니 낭패였다. 마음이 급하니 AAA를 부르려던 건데 생각도 못한 채 차고에 누워서 펀치로 철을 끊어 내는 작업을 시작했다.

가까스로 한두 군데를 끊어서 앞부분은 빠졌지만 손이 안 닿는 뒷부분은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할 수 없이 가까이 사시는 장로님께 SOS전화를 했다. 마침 일을 안 나가셨다고 장로님이 달려오셔서 철관을 꺼내 주셨다. 평소엔 큰오빠처럼 잘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이지만 차고 바닥에 누워서 힘들게 철관을 자르셔야 해서 너무 죄송했다. 미안해하는 나에게 장로님은 이웃 살면서 서로 도울 수 있으니 좋다고 하시면서 가셨다.

(10면으로 계속)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뉴욕갯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2:4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수요 저녁 예배: 오후 8:30 금요 기도회: 오후 8:30 한국학교: 오전 9:30(토) Tel: (516)520-2004, www.nygetsemane.org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	뉴욕목양장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08:00 금요침례: 오후 09: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 Tel: (718)361-9199, www.moakyang.org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	뉴욕부트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02:00 주일3부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회: 오후 08:45 새벽기도: 오전 05:30 성령훈련: 오전 10:00(화, 토) Tel: (718)265-2584, www.fkcby.org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뉴욕새벽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0:50 주일3부예배: 오후 1:15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Tel: (917)733-7387, chungkitae@yahoo.com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637-1470 45-50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 예배: 오전 10:30 영아 예배: 오전 10:45 수요 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461-2810(Fax: 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www.pcpcny.org, Tel: (516)387-9940, 9942(EM) 154 Old Westbury Road, Westbury, NY 11568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3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은사)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718)7406-7577, www.nyantioch.org 188-12 73 Ave., Fresh Meadows, NY 11366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 1주, 3주) Tel: (201)342-9194, sungdo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2부예배: 오전 10:50 청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학교: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30 수요예배: 오후 8:30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1부 오전 7:30(30분) 주일2부 오후 1:45(30분) 주일학교: 오후 1:45(30분) 청년예배: 오후 3:10(20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 Tel: (347)513-1351, cheong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	주비전교회 담임목사: 이규본 주일예배: 오후 12:30 찬양예배: 오전 6:00 금요중보기도: 오후 8:30 영아예배: 오후 1:00 Tel: (718)787-8999, bonrhee@hotmail.com 70 Plandora Rd., Manhasset, NY 11030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 (718)986-4040, www.kapcc.org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퀸즈한인교회 담임목사: 김바나바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젊은이예배: 오후 1:30 NCF예배: 오후 1:30 Tel: (718)672-1150, www.kcany.org 89-2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김성훈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강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오전 6:30(토) 금요찬양기도회: 매일 새벽, 저녁, 낮예배 금요영양기도회: 매일(매주) 오후 7:30 Tel: (604)584-5780, www.pcov.org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 3277-1489, Fax: 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 Paulo Cep 01528-010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포아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주일6부예배: 오후 7:00 Tel: (5511)6893-9754, 6892-1165 RUA SANTA RITA, 215-PARI-SAO PAULO-SP-BRASIL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인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 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종보기도회: 아침 7:40 유,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김성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 Tel: (416)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전 9:00 Tel: (808)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멕시코 선교 본부 교회 선교사: 임한곤 목사 1. 멕시코 반석 신학교 교수 2. 임마누엘 신학교 교수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후 3:00 주일3부예배: 오후 6:00 Tel: (52)33-3507-4111, hanimkr@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ajara MEX(멕시코)



목회서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JESUS IS COMING BACK)



이재근 목사 (주사랑선교교회 담임)

한국 순복음교회에서 발간 되는 월간지, 플러스 인생(1월호, 2009년, 신앙개발행, P.15)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2가지 실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브라질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으로부터의 이메일 내용입니다.

브라질 리오 데 자네이루, 이타구아 공중병원에서 얼마 전에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아이의 손은 마치 기도하는 손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부모에게 이 아이에게 수술이 필

요하며, 그래서 마취를 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술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손은 단순히 피부가 붙어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그 아이의 붙어있는 손을 분리시켰을 때, 아이의 손에 어떤 글자가 적혀 있었는데, "JESUS IS COMING BACK(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의사들은 그것을 보는 순간 울기 시작했고, 병원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그 아이는

수술 후 몇 시간 뒤에 천국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메시지 전달의 통로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타구아 지역은 지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고, 믿지 않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몇해전 칠레에서 리카르도란 사람이 꿈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섰던 대화의 내용입니다. "주님, 혼인잔치가 끝난다

면, 언제 주님께서 재림하시나요? 저에게 천국시계를 보여주세요.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요? 정각이 되려면 1분이 남았나요? 5분이 남았나요?" 리카르도, 천국시계에 남아 있는 시간은 없다고. "주님, 만약 시간이 다 되었다면, 왜 아직까지 재림을 안 하셨나요?" 리카르도, 이제 남은 시간은 아버지께서 죄인들이 회개하기 위해 주신 아주 적은 은혜의 시간이라고. 이제 곧 그 시간도 끝나가는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간증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이제 회개하며 돌아갈 시간조차 얼마 남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46분경 일본 후쿠시마 동쪽 179km에서 진도 8.9의 강진 이 발생 하면서, 약 20m(10층 빌딩 높이)의 쓰나미가 삼시간에 센다이시를 휩쓸어버리는 CNN의 생중계를 보면서, 자연재해 앞에 속수

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성을 재인식했습니다. 또한 반정부 시민혁명이 튀지니를 시작으로 이집트, 리비아에 이르기까지 중동 도처에서 시한폭탄처럼 터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말세에 일어날 징조가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처처에 기근과 지진, 쓰나미, 토네이도, 화산폭발,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간의 싸움 등을 보면서 말세가 되었고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고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32,500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제외한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면 주님의 재림과 심판도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알고, 믿음을 갖고 슬기롭게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 때에는 '예수천당, 불신지옥', 즉 신자에게는 영생복락의 천국의 상급과 면류관이

부여되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영원형벌의 지옥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두 천국 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고후6:2)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문제는 은혜 받을 때와 구원 받을 때 무한정이지 않고 끝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120년 걸려 준비되었지만, 120년 동안 회개할 시간을 주고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셨지만, 방주의 문이 닫히면 열리지 않았고, 홍수심판으로 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판으로 오실 예수님의 재림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며 마지막으로 회개할 시간을 주었지만, 돌이키지 않으면 은혜와 구원의 때는 끝이 나고 멸망과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4월 '전통주의 플랜' 합헌성 여부 판단

UMC 특별총회 전통플랜 최종결정...한인교연 환영성명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2019년 연합감리교회 총회에서 대의원들과 감독들이 동성애에 관한 교회 정책에 투표를 하기 전 무대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 (사진 Mike DuBose, UMNS).

연합감리교회(UMC) 특별총회에서 전통플랜(Traditional Plan)이 최종 결정됐다. 지난 2월 23일부터 26일까지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UMC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전통주의 플랜을 438 대 384(53%와 47%)로 통과시켰다.

최종 결과는 전날(찬성 461, 반대 359)보다는 찬성이 소폭 하락했지만 53%의 지지를 얻었다. 25일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25일 열린 총회에서 전날 법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던 '하나의교회 플랜'(One Church Plan)은 소수의견(a minority report)으로 투표를 진행했으나 찬성 374, 반대 449으로 최종 부결됐다. '하나의교회 플랜' 지지자들은 소수의견에 실망같은 희망을 걸고 지지를 호소했으나 오히려 전날(24일) 투표 결과(찬성 386, 반대436)보다 반대표가 더 많아졌다.

하지만 총회이후 아직 이 입법안이 효력을 발휘하지, 아니면 이 법을 무시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연회들의 다이내믹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반응이다.

우선 총회 마지막 날인 2월 26일 늦은 시간에 대의원들은 사법위원회에 전통주의 플랜의 합헌성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구했다. 교단 최고법원인 사법위원회는 오는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일리노이주 에반스톤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그 요구사항을 처리할 예정이다. 4월 열리는 회의는 사법위원

회 전통주의 플랜에 대해 교단의 헌법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최종 결정된 전통주의 플랜의 패키지에는 아프리카, 유럽 및 필리핀의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2건의 입법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것은 다른 입법안은 각 연회에 동성 결혼 및 안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요구하는 안건과 교단 탈퇴에 관한 안건이다.

사법위원회는 청원된 수정된 전통주의 플랜을 위헌으로 판결했는데, 이는 감독을 치리하는 법제계적 감독위원회를 만들자는 안건이었다.

사법위원회가 합헌으로 판단한 전통주의 플랜의 내용은 "자신이 동성애 관계에 있다고 공언한 사람"을 "동성결혼을 하고 살고 있거나, 동성과 동거 중이거나, 법원에서 결혼관계를 인정받은 사람과 자신이 동성애 관계에 있다고 공언한 사람"으로 확대된 것이다.

또한 합헌으로 인정된 내용은 동성결혼을 주례한 목회자에 대한 최소 처벌을 1년간 무보수로 목회자 자격을 정지시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위반 시에는 목회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다.

일리노이주 에반스톤에 있는 개혁신학대학원의 학생인 짐 바브웨에서 온 차운지 웰링톤 목사는 이 플랜이 통과된 후, 이번 투표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교회들 사이의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투표는 비밀 투표에 의한 것이지만 회의장에서의 투표에 관한 발언을 통해서 투표 결과가

지역적 차이를 반영했다는 것은 명백하다.

웰링턴 목사는 "이 결정은 교회의 미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며 "나는 이번 투표로 인해 전세계에 퍼져 있는 교회들 사이의 관계가 이후에도 똑 같을지 확실할 수 없다. 매우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총회가 통과시킨 마지막 안건은 교단을 떠나는 교회들이, 물론 제한은 있지만, 그들의 재산을 가지고 떠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건의 수정판이었다. 사법위원회는 이전 안건을 반복해서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이번 수정된 안건 역시 법원의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총회가 끝나기 직전, 오래된-아이다호 연회의 대의원인 도나 프리차드 목사는 서부지역총회는 변함없이 포용의 길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프리차드 대의원은 "서부지역총회는 계속해서 신학적이고 사회적인 다양성을 공유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완전히 개방되고 포용하는 하나의 교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역총회에서는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밝힌 캐렌 올리베토(마운틴스카이어연회 주재 감독)를 감독으로 선출했다. 전통주의 플랜 및 수정된 전통주의 플랜을 위해 열심히 활약한 웨슬리언연합회(WCA)의 제프 그린웨이 목사는 통과된 이 안건 상태로는 이 안을 집행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음"을 우려했다. 그는 "책임성을 물을 수 있는 실효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좌절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UMC 한인교회연합회(공동준비위원장 류재덕 목사, 이철구 목사)는 총회가 마친 다음날인 2월27일 UMC 특별총회 결정에 환영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OC SD평통주관 3.1운동 100주년 기념 2019 미주지역 평화통일 원탁회의에 이병만 추진위원장 이 결의문을 선포하고 있다

통일의 최대 걸림돌은 이념의 양극화

OC SD평통 주관 3.1운동 100주년 기념 원탁회의

민주평통 오렌지샌디에이고 협의회(회장 김진모)가 주관하고 미서부 평화통일 원탁회의 추진위원회(위원장 이병만 장로)가 주최하는 '2019 미주지역 평화통일 원탁회의'가 2월 27일 오후 5시부터 애너하임 세라턴파크 호텔에서 개최됐다.

'평화를 품다 마음을 잇다 통일을 열다'라는 슬로건하에 진행된 이날 행사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 가운데 OC평통, LA평통 자문위원을 비롯해 80여 명이 한인단체 관계자 360여명이 다양한 주제 토론에 참여했다.

민주시민교육프로젝트 결의 권혜진 연구원의 사회로 2시간여 동안 진행된 토론회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재외동포사회의 역할'이라는 타이틀 하에 △3.1운동 100주년 의미와 미주 한인사회의 삶 △2018 한반도 내가 뽑은 감동의 순간 △2차 북미정상회담과 한반도

비핵화, 평화라는 전체토론 항목과 △한반도 분단 상황이 지속되는 이유(평화와 통일의 걸림돌)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재미동포사회와 '나'의 생활 속 실천 과제라는 주제토론 항목을 가지고 참석자들 간에 의견을 나눴다.

원탁토론 시간에는 평통자문위원을 비롯해 남가주 지역 50여 개 한인단체에서 300여명이 한국의 원탁회의의 감사들의 진행로 참석자들이 원탁 테이블에 둘러 앉아 적청황록 4가지 색상의 카드를 들어 의견을 표시하는 신호등 토론과 개인별 문자 투표를 활용해 주제별 우선순위를 가리고 공통 의견을 수렴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이어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문을 통해 추려진 주제들을 가지고 토론 결과는 카톡방을 통해 현장 투표로 집계가 이뤄졌다. 우선 전체 토론으로 지난해

가장 감동적인 사건 10가지 후보를 놓고 1인당 3개씩을 선정한 결과 총 155명이 참여한 가운데 1차 남북정상 판문점 회담이 74.2%, 1차 북미정상회담 62.6%, 평창올림픽 남북선수단 공동 입장 32.3% 순으로 나타났다.

이날 평화와 통일이 영원만큼 진전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236명의 참가자들은 △이념의 양극화(61.4%) △분단으로 인한 남북격차(47%) △북한의 위협상존(46.6%) △통일논의의 정치화(36.4%) △3자국 중심의 국제관계(36%)를 꼽았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재미동포 사회의 실천과제에 대해서 242명의 참가자들은 △차세대 통일 공감대 확산(43.8%) △평화통일을 위한 동포 네트워크 구축(42.6%) △비핵, 평화 국제 공감대 확산(41.3%) △지속가능한 통일정책 지지활동 전개(40.9%) △동포사회 내의 갈등 해소(39.3%)를 꼽았다.

토론 결과가 발표된 후 황원균 평통미주부위원장, 이병만 추진위원장, 김점준 통일정책자문장이 이날 도출된 토론 결과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약속과 함께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3개항의 결의문을 선포했다.

이어 참석자 전원이 각자의 평화와 통일의 염원을 적은 종이를 직접 비행기를 접어 날리는 퍼포먼스를 펼쳤으며 '우리의 소원'을 합창하며 이날 행사를 마쳤다. (박준호 기자)



3.1만세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및 도산안창호의 날 제정기념 뮤지컬 도산에서 전출연진과 스텝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3.1만세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도산 안창호의 날 제정기념 뮤지컬 '도산' 성황

3.1만세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및 도산 안창호의 날 제정기념 뮤지컬 '도산'이 3월 3일 오후 5시30분 리버사이드에 위치한 로마리안대학교 교회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공연을 마친 후 도산 안창호 역할로 출연한 테너 최원현 씨는 "너무 감격스럽고 좋은 분들이랑 같이해서 감사하다"며 "공연을 준비하면서 어려운 점 많았는데 많은 분들이 기쁘고 재미있게 봐주셔서 모

"음악이라는 꽃으로 애국선열에 헌화"

예기회,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연주회

예기회(대표 황호진) 주최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연주회가 '독립을 위한 꽃(Flowers for Independence)'이라는 주제로 2일 오후 7시30분 지퍼홀에서 열렸다.

전 세계적 비폭력 운동에 영

향을 주고 평화증진에 기여할 한 우리 애국선열들의 독립정신과 희생을 기리며 음악이라는 꽃으로 그들에게 헌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열린 이번 연주회는 오정근 예술감독을 주축으로 소프라노 신선미, 메조소프라노 글로리아 필러모, 바리

톤 장상근, 피아니스트 장성과 애스터리 씨가 출연했다.

또 조지현 객원지휘자와 황신에 부지휘자가 합세하며 LA 매스터 오케스트라, LA영플레이어, LA레이디 싱어스, 벨리한인여성 매스터 코랄이 무대에 올랐다.

이날 연주회는 고향의 봄을 다함께 부른 뒤 마쳤다. (박준호 기자)



예기회가 주최한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연주회에서 공연이 마친후 전출연진들이 청중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박준호 기자)

동부교계 게시판

뉴욕수정교회 임직예배

뉴욕수정교회(황영송 목사) 장로 장립 및 안수집사 권사 임직예배가 3월 17일(주일) 저녁 5시 본 교회당에서 열린다. 임직자는 장로 1명, 안수집사 3명, 권사 6명, 명예권사 2명 등 총 12명.
▲문의: (718)467-9800

뉴욕 센트럴교회 내적 치유 세미나 및 집회

뉴욕 센트럴교회(김재열 목사)가 이영희 목사(아담스카운티 교도소 채플린)를 강사로 내적 치유 세미나 및 집회를 갖는다. 일시는 3월 29일(금) 저녁 8시(영어권 청소년), 3월 30일(토) 새벽 5시30분(한어권 장년) 3월 31일(주일) 오전 9시, 11시(영어부), 오후 1시30분(한어권 장년).
▲문의: (718)352-6753

뉴욕만나교회 아기교실 오픈

뉴욕만나교회(정관호 목사)가 4월-5월 8주간에 걸쳐 아기교실(Me & Mommy)을 연다. 일시는 매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30시부터 정오까지. 등록비는 30달러.
▲문의: (407)617-4071

미주 좋은성품 세미나

좋은나무성품학교(대표 이영숙 박사)가 주관하고 씨존(대표 문석진 목사)이 주최하는 미주 좋은성품 세미나가 오는 3월 10일부터 19일까지 5회에 걸쳐 뉴욕, 뉴저지, 메릴랜드에서 개최된다. 일정은 △3월 10일(주일) 오후 1시30분 뉴욕그레이트레이크교회(양민석 목사) △3월 11일(월) 오전 10시-오후 3시 뉴저지 프라미스교회(허연행 목사) △3월 18일(월) 오전 10시 메릴랜드 Rainbow Christian Learning Center △3월 19일(화) 오후 3시30분 메릴랜드 Rainbow Christian Learning Center.
▲문의: (612)803-9080

'찬양과 영성회복'

이상목 목사(이리한인장로교회)를 강사로 하는 '찬양과 영성회복(Praise & Spirituality)'이 3월 22일(금)부터 24일(주일)까지 메릴랜드 인터내셔널사랑교회(이예스터 목사)에서 열린다. 시간은 금요일 저녁 7시 30분, 토요일 새벽 6시, 저녁 6시, 주일 오후 2시. 한편 25일(월) 오후 2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목회자능력기도회가 열린다.
▲문의: (443)966-1401

청암감리교회, 뉴욕나눔의집 방문 후원금 전달



지난 2월 24일 청암감리교회 차철희 목사와 제 2, 3 여성교회 임원들이 한인 노숙인 무료 쉼터 뉴욕나눔의 집(대표 박성원 목사)을 방문해 의류품과 침구, 식품 등과 함께 후원금을 전달했다.

(기사제공: 뉴욕나눔의집)

"작은 배려가 큰 결과를 낳는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2월 정기 예배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가 지난 2월 27일 오전 10시 30분 뉴욕나눔의집에서 2월 정기예배를 드리고 회의를 진행했다. 회장 이종명 목사의 개회기도 후 시작된 회무에서는 2019년 중심사역이 발표됐다. 사무총장 박이스라엘 목사는 △회원들에게 결연아동 현황 2회 발송 △회원들에게 납부금 내역과 텍스 넘버 2회 발송 △선교지 방문 △2019 후원자의 밤 등에 대해 설명하고 선교지와 방문 일정은 추후 논의하며 후원자의 밤은 12월 첫 주일이 될 것으로 예정한다고 밝혔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박성원 목사 인도로 기도 조상숙 목사, 설교 방지각 목사, 합심기도 박이스라엘 목사, 축도 유상원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방지각 목사는 "배려하는 자

의 복"(마7:7-12)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본문 12절은 배려하면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의미다. 배려는 요구하기 전에 미리 해주는 것인데 배려가 잘 안 되는 것은 죄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인데, 배려하는 사람들은 좋은 관계를 맺게 되며 작은 배려가 큰 결과를 낳게 된다. 성경에서도 바나바, 요셉, 다윗 등은 배려의 본을 보인 사람들이다. 기도예 응답 받으려면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3월 정기예배는 27일(수) 오전 10시30분 뉴욕평화교회(임병남 목사)에서 열린다. 또한 4월 말에는 콜롬비아 김혜정 선교사의 뉴욕방문이 있다고 공지했다. (유원정 기자)

순종하는 믿음으로 치유 받으라!

뉴욕교협 신유축복 대성회, 강사 우수양 목사

뉴욕교협이 주최한 2019년 첫 연합집회인 신유축복 대성회가 3월 1일부터 사흘간에 걸쳐 열렸다.

회장 정순원 목사는 "오늘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를 당부하고 "이번 회기에는 '성결한 삶의 실천'을 강조했다. 2019년 첫 번째 성회를 신유축복회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한다. 교협 45년 사상 처음으로 신유집회를 개최하게 하신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천국 잔치가 되기를 바란다"고 인사하고 강사 우수양 목사를 소개했다.

우수양 목사(목자교회)는 첫날 "표적과 기사"(막16:15-18)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영적 회복이 이뤄지는 성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지금은 하나님과 특별한 영의 양식을 먹는 시간이다. 여러분의 사정을 하나님이 아신다. 문제 해결 받았다, 병고침 받았다, 응답됐다, 그러면 웃으라"며 자신이 먼저 웃었다.

유 목사는 "희망과 비전, 꿈을 갖고 가는 사람은 인생역전이 된다"며 하와이에서의 간증



뉴욕교협 주최 신유축복 대성회 첫날 강사 우수양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을 하며 "초대교회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많은 환자들이 고침 받고 영적 부흥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 성령 충만하고 불을 받아야 한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성령의 역사다,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나타나는 데,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다, 믿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수양 목사는 또 "육신의 병은 완전히 고쳐야 한다"며 우울증, 자살 미수 등을 고친 사례를 간증했다. 유 목사는 "현대 기독교인들은 순종의 미가 사라졌는데, 순종하는 믿음의 기도는 고침 받게 한다. 믿지 못하면 마귀가 물러가지 않는

다"고 믿음은 축복임을 역설했다.

우수양 목사는 설교 후, 또 집회 후에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날집회는 이준성 목사 인도로 김경길 목사 특별찬양, 인사말씀/강사소개 정순원 목사, 기도 관케더린 목사, 성경봉독 이광도 장로, 찬양 유태웅 목사, 설교 우수양 목사, 헌금기

도 안경순 목사, 헌금송 이광선 집사, 광고 이창종 목사, 축도 양희철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둘째 날 낮 집회는 이은수 목사 인도로 기도 한준희 목사, 설교 우수양 목사("성령의 능력", 행4:8), 헌금기도 김영철 목사, 헌금송 안경순 김사라 목사, 광고 이창종 목사, 축도 박마이클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저녁집회는 전희수 목사 인도로 특별찬양 송금희 전도사, 기도 마바울 목사, 찬양 뉴욕권 사선교합창단, 설교 우수양 목사("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인도함", 롬8:12-17), 헌금기도 이주익 장로, 헌금송 정지형 선생, 광고 정대영 목사, 축도 박수철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마지막 날은 양민석 목사 인도로 특별찬양 양근식 장로, 기도 김태현 목사, 성경봉독 김재관 장로, 찬양 뉴욕장로성가단, 설교 우수양 목사("하나님의 훈련", 신8:1-3), 헌금기도 손성대 장로, 헌금송 신우철 송우룡 목사, 광고 이창종 목사, 축도 문석호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유원정 기자)



뉴욕교협 제 33대 전반기 정기이사회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교협예산안 통과, 주요사업 계획 발표

뉴욕교협 제 33대 전반기 정기 이사회

뉴욕교협 제 33대 전반기 정기 이사회가 지난 4일 저녁 플러싱 글래스 산식당에서 열려 제 45회 교협예산안을 통과하고 주요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부이사장 김영호 장로 인도로 기도 신철승 장로(총무이사), 성경봉독 안인종 집사(기획이사), 설교 정순원 목사(교협회장), 통성기도 송윤선 장로(기획이사), 교협 중요활동 현황 보고 이은수 목사(교협총무), 축도 정순원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정순원 목사는 "존경받는 신앙"(막5:22-24, 35-43)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이 불신의 시대에 아이로는 훌륭한 인격과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라며 "그가 주님 앞에 었드렸다는 것은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라는 고백이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었드려 간구함으로써 응답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목사는 "또 36절에서 딸이 죽었다고 했지만 계속 믿으라 하신 주님을 믿음을 믿고 끊임없이 간구할 때 절대적으로 응답하셨다"며 "이사회가 아이로의 신앙을 본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순원 목사는 지난 3월 1일

부터 사흘간 열린 신유축복집회에 대해 언급하면서 일기가 불순했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집회를 통해 흑자재정으로 돌아섰다고 발표했다.

이창종 목사(교협총무)의 식사기도 후 회장 손성대 장로 사회로 회의가 진행됐다. 김주열 장로(교협부회장)의 개회기도 후 손 이사장의 개회인사, 회원점명, 개회선언, 전회의록 낭독, 안건토의, 주기도문, 폐회선언으로 이어졌다.

손성대 이사장은 "모든 이사들이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일기가 불순하고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이사들에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예산안은 수입 414,742.84달러, 지출 414,742.82달러로 통과됐다.

또 행사계획은 △부활절 새벽연합예배 지역별 참여(4월 21일) △성령화대성회 협력(5월 10-12일) △할렘투어 북음화대회 적극 참여 및 지원(7월 12-14일) △임실행위원 초청 야유회(7월) △차세대대를 위한 집회(9월 6-8일) △이사회 야유회(5월, 9월) △교협 임실행위원회 참석 등이다. (유원정 기자)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뉴욕노회 제 84회 정기노회 예배를 마치고 참석 노회원들이 기념촬영 했다.

새 노회장 흥춘식 목사, 부노회장 김성국 목사 KAPC 뉴욕노회 제 84회 정기노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뉴욕노회 제 84회 정기노회가 3월 5일 오전 10시부터 오메가선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새로 선임된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노회장 흥춘식 목사 △부노회장 김성국 목사 △서기 허윤준 목사 △부서기 이윤석 목사 △회록서기 방정훈 목사 △부회록서기 정인수 목사 △회계 정성호 장로 △부회계 차상남 장로.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노회장 문종은 목사 인도로 기도 이종원 목사, 성경봉독 정기태 목사, 설교 흥춘식 목사, 성찬예식 집전 이규분 목사, 축도 손환권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흥춘식 목사는 "일어나 이요단을 건너라"(수1:1-9)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지금은 목회하기 힘든 시기다. 종말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런 시기에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사명을 받은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역과 삶 속에 나타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목사는 "모세가 죽은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 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아무 것도 아니며 단지 쓰임 받을 뿐이라는 자세로 내게 맡겨주신 양들을 데리고 요

단을 건너야 한다.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성찬예식을 집전한 이규분 목사는 '구속자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임재 체험', '예수님과 하나님' 등을 강조하며 성찬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 강조했다.

2부 회무처리는 노회장 문종은 목사 사회로 서기 임병순 목사의 회일회명에 이어 개회선언, 절차보고, 공천부 보고, 임원개선, 서기 사무보고, 현의 청원문서 접수보고, 각부 보고, 시찰보고, 회계보고, 선교사 사역보고, 신안건 토의로 이어졌다.

임원개선은 공천부가 공정한 임원들을 노회원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재공천을 했으나 동일한 결과를 내자 무기명 투표로 재공천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일부 임원들이 사립의사를 밝혀 공천부가 다시 추가 공천했다.

뉴욕노회에는 21개 교회에 44명의 목사와 7명의 장대 총대가 소속돼 있다.

한편 이날 노회 후에 목사안수식이 열려 김희태, 박화중, 신동기, 이숙규 씨 등 4명이 목사안수를 받았다. (유원정 기자)

일상칼럼

(8면에서 계속)

오후에 쥐약을 사서 차고 여기저기에 놓고 쥐가 붙는 끈적어도 몇 개 사서 늘어놓았다. 두어 시간 지나서 차고에 나가 보니 그새 쥐 한마리가 끈적이에 붙어 있는 것이었다. 큰 비닐봉지에 넣어서 버리겠다고 용감하게 다가갔는데 살아서 짹 짹 거리는 쥐를 보니 불쌍하고 무섭고 징그러워서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평소 같으면 장로님께 도와달라고 하겠는데 아침에도 다녀가

셨으니 도무지 다시 오시라고 할 염치가 없었다. 차고 한구석에 서서 "어떻게, 어떻게" 그러면서 발을 동동 구르다가 생각난 것이 옆 집이었다.

전화를 받은 옆 집 남편과 아들이 달려와서 쥐를 담아서 쓰레기통에 넣어 주고 갔다. 아침부터 밤까지 쥐 때문에 소동을 떨면서 너무 고마운 장로님과 옆집 부부를 통해 이웃사랑을 경험했다. 이웃사촌이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나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언제나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 lpyun@apu.edu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2월 정기 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애국선열 나라사랑 마음 본받자”

남가주한인목사회,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김관진 목사)가 주최하고 교계단체와 기독교인들이 후원한 삼일절 100주년 기념행사가 3일 오후 4시 남가주새누리교회(담임 박성근 목사) 구 본당에서 1부 예배, 2부 기념식, 3부 감사와 축하의 순으로 진행됐다.

샘 신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직전회장) 사회로 드려진 1부 예배는 이호우 목사(OC협 직전회장) 기도, 김근수(OC한인목사회 회장) 목사 성경봉독, 설교 피종진 목사(대회장, 남서울중앙교회 원로) 축도 한기형 목사(남가주교회협의회 회장) 순서로 진행됐다.

피종진 목사는 ‘큰 용사여’(삿6:12)란 제목으로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된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은 제일 작은 자라고 하는 진정한 겸손함이 있었고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므로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다”고 말하며 “이



삼일절 100주년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만세삼창을 외치는 모습

곳에 모인 모든 분들이 이 시대에 큰 용사가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감사예배를 위해 목사장로부부합창단과 남가주장로성가단의 특별 찬양이 있었다.

이어 박세현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념식은 국민의례와 국기 입장,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과 3.1여성동지회의 선창에 따라 삼일절 노래가 울

려 퍼진 뒤 송영일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부회장)가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남가주한인목사회 김관진 회장은 대회를 통해 “우리는 2.8 동경 독립선언 연합 조찬기도회를 시작으로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애국애족의 정신을 다시 한 번 고취하고자 한다”며 “역사의 교훈을 깨닫지 못하는 민족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는 냉엄한 교훈 앞에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별 어지고 있는 강대국들의 격랑의 파고 속에서 우리 민족의 앞길은 우리가 개척해 나가야 하는 중차대한 사명을 인식하며

우리 모두 일어서서 조국을 위해 기도하며 애국선열들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본받자”고 강조했다.

이날 축사를 맡은 송정명 목사는 “북녘 땅에 우리 동포들과 지하성도들에게 참된 자유가 찾아오기를 기도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영적 자유를 맛볼 수 있도록 전도하며 분과와 분열이 없는 한마음이 되어 앞으로 맞이할 새로운 100년을 꿈꾸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념사는 권영신 장로(대한민국민회 이사장)가, 격려사는 김영균 장로(남가주장로협의회 회장)가 맡았으며 로라진 회장(LA한인회)의 축사가 있었다.

이어진 3부는 감사와 축하의 시간으로 피종진 목사와 권영신 장로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으며 박세현 목사가 목사회를 소개한 뒤 만찬을 통해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

삼일절 100주년 기념행사는 4일 리들리(Reedley) 사적지 방문과 기념행사로 이어졌다.

올해는 삼일절 100주년이라는 특별한 해로 교계와 교민단체 곳곳에서 기념행사가 개최됐으나 행사장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참여율로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성자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갯스비전교회 권사취임 감사예배

갯스비전교회(임금빈 목사)는 권사 취임 감사예배를 10일(주일) 오전 11시 45분에 갖는다. 이날 권사 취임은 강명선, 전영미 집사가 취임하며 설교는 다니엘 뉴먼 목사(아주사퍼시픽대학교 교수)가 맡는다.

▲문의: (714)331-8919

세계기도일예배

미주한인교회여성연합회 남가주 지부는 9일(토) 오전 10시 동양선교회(김지훈 목사)에서 세계기도일 예배를 갖는다.

▲문의: (562)569-9133

ANC온누리교회 인성크대학 개강

ANC온누리교회(담임 김태형 목사)가 운영하는 인성크대학 봄 학기가 7일(목)부터 14주간 매주 목요일 진행된다. 프로그램 일정은 오전 9시에 시작해 1교시와 2교시로 구성되며 점심식사 후 1시간동안 특별활동을 갖고 마무리 된다.

▲문의: (323)356-2167

미주장신대 첫 번째 북 콘서트

미주장신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 첫 번째 북콘서트가 13일(수) 오후 12시20분부터 1시10분까지 본교 채플실에서 열린다. 강사는 본교 선교학 교수인 김일권 교수이며 일정은 이상명 총장이 축사하며 김일권 교수가 “우드베리의 이슬람 선교신학”에 대해 소개, 김루빈 교수(학생처장)와 성경숙 왕조실록 저자인 배경락 목사(전 서북교회 담임)가 서평,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 저자사인 시간으로 진행된다.

▲문의: (562)926-1023

뮤지컬 ‘마루마을’ 리메이크 공연

극단 이즈키엘, 6월 14-29일

극단 이즈키엘(대표 전수경) 뮤지컬 ‘마루마을’이 리메이크 공연이 오는 6월 14일부터 29일까지 Barnsdall Gallery Theater(4800 Hollywood Blvd, Los Angeles, CA 90027)에서 열린다.



주요 배우로는 디즈니랜드 뮤지컬 ‘물란’에서 ‘물란’역으로 활동 중인 한예람(윤희 역)을 비롯 이혜찬(삼식 역), 뮤지컬 ‘도산’에서 ‘도산 안창호’ 역을 맡은 최원현(김복사 역) 씨가 있다.

뮤지컬 ‘마루마을’은 2014년도 여름, 극단 이즈키엘의 세 번째 프로젝트로 막을 올린바 있으며 매년 기록을 세우며 커다란 호응을 얻고 여러 번의 앵콜 공연을 이어갔다.

이 작품은 ‘교회’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주제로 참다운 교회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관객에게 전했다. 마루마을의 성공으로 이즈키엘은 뮤지컬을 향한 또 다른 도약을 하게 됐고 일곱 번째 작품인 ‘청년예수’를 1000여명이 조금 넘는 다우니 시립극장 관객 앞에서 공연하게 됐다.

대극장 프로덕션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즈키엘은 이제 1시간 20분짜리 원작을 2시간으로 훨씬 업그레이드 한 2019년 버전의 마루마을을 제작하고 있다.

한편 이즈키엘은 뮤지컬 ‘마루마을’ 뮤직 비디오 제작을 앞두고 있으며 교회나 단체 리뷰 공연을 계획하고 있다. 프리뷰 공연을 원하는 단체는 (213)200-9544로 연락하면 된다.

또한 뮤지컬 ‘마루마을’ 타이틀 곡 ‘사랑이라는 건’의 한국어 버전은 <https://youtu.be/ym7UbuWhzqQ> 에서 영어 버전은 https://youtu.be/rGd99mo_0Ek 에서 그리고 30초 티저 동영상은 <https://youtu.be/1bJ7Cf0nqvg> 에서 볼 수 있다.

(박준호 기자)



원하트미니스트리 주최 마커스 워십 첫날 집회에서 찬양팀과 청중들이 뜨겁게 찬양하고 있다. 사진:우측단원은 첫날 강사로 나선 다니엘뉴먼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모습

하시고 하나 되기 원하신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야 한다”며 “아버지 마음을 순종하게 돼 감사했다”며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감격이다. 저희 교회가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력 끼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커스워십 심종호 예배인도자는 “미주에서 오랜만에 집회를 했는데 많은 세대와 예배해서 감사하다”며 “이 지역 아픔과 문제들에 대해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다니엘 뉴먼 목사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니 힘이 됐으며 연합을 위한 꿈을 꿀 수 있어서 좋다.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고창현 목사는 “저희 교회가 많이 회복돼서 지역사회와 젊은이를 위해 예배장소를 제공하게 돼 감사했다”며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감격이다. 저희 교회가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력 끼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커스워십 집회 둘째날(토)은 세리토스장로교회(담임 박규성 목사)에서 열렸으며 오전에는 예배컨퍼런스도 가졌다. 또한 셋째날인 3일(주일)은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에서 열렸다.

(박준호 기자)



성서장로교회 50주년 행사

“삶 가운데 좋은 열매 맺히길”

성서장로교회 설립50주년 감사예배 및 음악회

성서장로교회(김병용 목사)는 3일 오후 3시 설립50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기념음악회를 열었다.

김병용 담임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김영균 장로의 기도와 본 교회 연합성가대의 찬양이 있는 뒤 직전 당회장 나민주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나 목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갈2:20)의 제목으로 “어느 미국인으로부터 ‘당신은 거듭난 성도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그때부터 ‘나는 교회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고 말하며 “성서장로교회는 1969년에 태동돼 몇 분의 성도님들과 예배를 드렸다. 지난 50년 동안 많은 성도들이 힘든 이민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이끌어왔음에 감사한다. 성도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고 강조하며 “성도들의 삶

가운데 좋은 열매가 맺히기를 바라며 축복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회 설립 때부터 교회를 위해 헌신해온 3명(임진수 장로, 한성수 한성모)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서 장광춘 목사(KEPC 총회장)와 이상훈 목사(사우스베이목사회 회장)가 각각 축사 하고, 권오달 목사(미주대신 중경노회장)의 축도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친 뒤 기념 음악회를 진행했다.

기념 음악회는 정지윤 목사의 축시를 시작으로 앤젤찬양울동단, 남성중창단, L남성중창단, 글로벌심포니 밴드, 흥대선 흥영란 집사, 나민주 목사의 클라리넷 독주와 그리운 금강산, 윤기성 목사의 ‘내맘의 강물’ 등으로 음악회가 진행됐으며 참석한 모든 이들이 ‘여기에 모인 우리’를 부르고 마쳤다.

(정리: 박준호 기자)



그레이스미션대 유학생 및 신학생을 위한 세금보고 강좌에서 구자혁 교수가 강의하고 있다

유학생 신학생 위한 세금보고 강좌

그레이스미션대...강사 구자혁 교수

그레이스미션대학교(총장 최규남 박사)는 유학생 및 신학생을 위한 세금보고 강좌를 1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본교 도서관에 위치한 강의실에서 구자혁 교수가 강사로 참여한 가운데 개최했다.

강의는 △개인세무보고 △세무보고를 위한 조건 △세무보고와 소셜번호(SSN) △고용과 소득에 대한 이해 △세무보고가 주는 혜택 △신학생들에게 적용되는 특별 △유용한 세무정보-크레딧카드 및 크레딧스코어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구자혁 교수는 “소득세의 금액은 수입에 따라 달라지며 소

득이 적은 사람은 더 낮은 비율로 소득세를 낸다”며 “미국 내에 거주하며 소득이 있고 별도의 요구사항에 맞는 사람은 누구나 소득신고서를 작성하고 납부의 의무가 있는 모든 세금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 교수는 “부모가 유학생일지라도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났을 경우 자녀가 11학년이 되면 세금보고를 해야 연방정부 보조 신청서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FAFSA)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준호 기자)



미주장신대에서 열린 제11차 기독교인문학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하나님, 아름다움, 문화, 그리고 교회공동체’

미주장신대 제11차 기독교인문학포럼

미주장신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는 ‘하나님, 아름다움, 문화, 그리고 교회공동체’라는 주제로 미주장신포럼을 2월 28일오후 7시 본교 채플실에서 열었다.

박동식 교수(조직신학교수/기독교인문학 디렉터) 사회로 시작된 포럼은 이도환 목사(한인독립장로교회 담임)가 강사로 나서 열린 강의를 인도했다.

이도환 목사는 “신학이 대부분 이론과 윤리중심으로 교육되고 있다. 무엇이 진리이고 어떻게 살아야하는지 중심으로 교육된다. 그러나 사회가 디자인시대가 됐다”라 말했다. 이 목사는 “아파트 건축시 평수도 중요하지만 외형도 중시된다. 스펀지통을 사더라도 튼튼함보다 디자인을 볼 정도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실제로 디자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물건 구입하고 소비하는 중요한 기준이 이미지 컬러 등이다. 5년전만 해도 스마트폰을 보고 산책하는 자들을 어른들이 한심하게 여겼지만 요즘은 연령과 상관없이 스마트폰을 보며 살아가는 시대”라 말했다.

이 목사는 “시대가 디자인 시대, 스타일시대, 보는 시대가 되면서 아름다움이란 단어가 주목받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설명했다. 그는 “교회는 귀로 들리는 말씀중심에 머물러 있지만 40대 초반까지는 진리를 귀로 들려줄 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는 진리를 교회가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칼바르트는 신학은 모든 학문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학문이라고 말했다. 성경은 놀라움으로 기쁨으로 우리인생을 결단한 가치를 발견하는데 감정이 먼저 표현될 것이다. 신학의 시작은 인간의 품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감동 기쁨이다. 신앙적 실천은 우리의 의무감 이전 예수를 발견하는 것이 먼저다. 논리적이고 교리적이고 이성적인 작업은 살아보고 정리하는 것”이라 말했다.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본질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어떤 형태로 실천하고 표현할 때 우리의 스타일이 된다”며 “우리가 어떤 교회나 커뮤니티를 잘 살펴보고 하나의 본질적 가치 붙잡고 지속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내고 표현할 때 스타일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으로 전해지는 미학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세대와 세대가 연합해서 예배...

원하트미니스트리 주최 마커스 워십 집회 성황

원하트미니스트리(대표 피터 박 목사)가 주최한 마커스워십 집회가 3월 1일부터 3일까지 열렸다.

3월 1일 저녁 7시 토렌스제일장로교회(담임 고창현 목사) 설립 40주년 행사에 맞춰 열린 첫날 집회는 마커스워십과 원하트미니스트리의 연합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했으며 다니엘 뉴먼 목사(아주사퍼시픽대학교 교수)가 ‘한 가정의 이야기’(눅 5:25-32)라는 제목으로 말씀

을 전했다.

뉴먼 목사는 “탕자의 비유는 한 가정의 이야기이며 이는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알려주기 위한 비유”라며 “문제는 아들이 아버지가 누구신지 몰랐다는 것”이라 언급하고 “우리가 방향할지라도 돌이키기만 하면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다. 그것은 내 아들은 영원토록 내 아들이라는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 말했다.

그는 “하나님은 화목하기 원

그날 만세 함성, 평화염원 기도로...

3·1운동 100주년, 교계 힘모아 뜻 깊은 기념예배

한국교회는 1일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기념예배를 드리고 선조의 순교신앙을 이어 받아 섬김과 희망의 자세로 민족의 새로운 100년을 열기로 했다.

교계 연합기관과 주요 교단이 함께한 '3·1운동 100주년 한국교회위원회'는 이날 서울 광장에서 을지로입구역까지 300m 구간에서 '3·1운동 100년 한국교회기념대회'를 개최하고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의 통치를 간구했다.

2만여명(주최측 추산)이 참석한 대회에서 이영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는 "1910년 일본에 강제합병 당한 대한민국은 35년간 식민통치의 고통을 겪었다"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선 당시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한국을 선진국가, 아시아 최대의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주셨다"고 강조했다. 이어 "100년 전 믿음의 선진들이 대한민국의 해방을 위해 앞장섰듯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증거해 민족의 100년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특히 노숙인 탈북새터민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 참된 진리와 자유를 얻게 하자"고 당부했다.

윤보환 대회 준비위원장은 "3·1운동은 온 교회가 나라를 살리기 위한 민족·민중 계몽운동, 전도운동, 기도운동, 거룩한 비전운동이었다"면서 "3·1운동의 정신과 순교신앙을 계승해 민족과 세계복음화를 위한 새로운 100년의 리더십을 갖자"고 말했다. 림형석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장은 "100년 전 기독교 학교의 기독교청년들은 3·1운동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데 동등한 역할을 했다"면서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는 세속주의 풍조에

자녀들을 빼앗기고 있다. 이제 우리의 소망은 다음세대가 대한민국의 의인 10명, 기드온의 300용사, 바알 우상에게 입 맞추지 않는 7000명의 기도용사가 되는 것"이라며 "독려했다."

이날 한국대학생선교회(CCC) 소속 450여명의 대학생들로 구성된 찬양대가 '그리스도의 계절'을 불러 큰 박수를 받았다. 참석자들은 기미독립선언서 낭독 후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다.

이어 일한친선선교협력회(회장 오야마 레이지 목사) 회원들이 단상에 올라 큰절하며 일제의 만행을 사죄했다. 오야마 레이지 목사는 "일본은 한국의 나라와 왕, 쌀, 토지, 여인의 정조 등을 빼앗았고 '신사참배'는 국민의례이니 받아들여야 하며 기독교 신앙을 말살하려 했다"면서 "그러나 한국교회는 박해에 굴하지 않고 주지절 목사 등 순교자를 배출하며 신앙을 지켰다. 진심으로 존경한다"고 고백했다.

한국교회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대회에 앞서 서울 중구 정동제일교회 베넬예배당에서 '3·1운동 100주년 한국교회 기념예배'를 드렸다. 정동제일교회는 100년 전 기독교인 민족대표들의 명단이 확정되고 미션스쿨 학생 지도부에게 독립선언서가 사전 배포된 장소다. 민족대표였던 이필주 목사가 설교한 그 강대상에서 메시지를 전한 이성희 NCCK 회장은 "싸우지 않고 나라를 잃었으니 싸우지 않고 나라를 되찾을 것이다"란 월남 이상재 선생의 말처럼 3·1운동의 핵심 정신은 비폭력과 평화정신"이라면서 "신앙 선조들도 같은 기독교 정신을 붙잡고 일경의 총칼과 폭압 앞에서 용기를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교회는 100년 전 신앙 선

배들의 정체성을 회복해 교회 울타리를 넘어 사회에 헌신하며 겸손하게 세상을 섬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재 고백 시간에 원성웅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 감독은 "3·1운동 100년이 흐른 지금 한국교회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그대 안에 들어버리고 말았다"고 고백했다. 박종화 국민문화재단 이사장은 "성서의 가르침에 침묵하고 대신 그 자리에 욕망의 십자가를 세웠다"고 안타까워했다.

성찬식을 인도한 이승희 예장통합 총회장은 "3·1운동 100년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오늘, 우리 모두는 옛사람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뼘과 한 잔을 나눔으로 새사람이 돼 새로운 선포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예배에선 장애인 이주노동자 여성 청년 경제정의생태 한반도평화 세계평화 등 주제별로 사역자들이 기도문을 낭독하고 이를 교단 총회장에 전달하는 시간이 있었다. 한명숙 서산농이교회 목사는 수화를 통해 소리 없는 기도문을 낭독해 숙연케 했다.

서울 신촌지역 교회들은 창천감리교회에서 연합예배를 드렸다. 이정익 신촌성결교회 원로목사는 설교에서 "100년 전 3·1 운동은 기독교와 천도교, 불교의 연합으로 민족의 세계관을 세계로 확장한 세계사적 평화운동이었다"면서 "당시를 추억하는 데만 그치지 말고 100년 전의 기상을 회복해 소중한 조국을 아끼고 지키자"고 권면했다. 대신감리교회 대한장로교회 신촌성결교회 신촌장로교회 창천감리교회 등 신촌지역 5개 교회는 1984년부터 매년 3월 1일 연합예배를 드리고 있다.

일본교회, 과거사에 무릎 꿇고...

일한친선선교협력회 화성 제암교회 방문

3·1운동 100주년을 이틀 앞둔 27일 일본 기독교인들이 선조의 만행을 고백하고 사죄했다. 한국을 찾은 이들은 지난날의 비극을 인정하고 한·일 양국이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목회자와 평신도, 선교사 10여명으로 이뤄진 일한친선선교협력회(회장 오야마 레이지 목사) 방문단은 이날 경기도 화성 제암교회(최용 목사)를 찾아 '사죄와 화해를 위한 기도회'를 열었다. 1960년대부터 제암교회에 사죄방문을 해온 오야마 레이지(92) 목사는 올해도 방문단과 함께 26일 입국했다.

기도회에서는 3·1운동이 전국으로 퍼지며 발생한 비극인 '화성 제암리 학살사건'에 대한 사죄의 메시지가 이어졌다. 제암리 학살사건은 1919년 4월 15일 일본군이 화성 지역 만세운동에 가담한 제암리 주민 20여명을 교회에 가둔 뒤 학살한 사건이다. 일본군은 제암리와 인근 마을 주민들도 차례로 살해했다. 이 사건은 사망한 주민들의 장례식을 주도한 한 선교사에 의해 세상에 드러났다.

오야마 목사는 63년 제암교회를 처음 방문한 순간을 잊지 못한다고 했다. 그는 "제암리 학살사건을 처음 접한 후 일본인도 이 사건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2년 뒤 대학생 10여명과 함께 희생자들의 유족을 찾아갔지만 끝내 거절당했다"고 말할 땐 눈시울이 붉어지며 말문

을 잊지 못했다. 오야마 목사는 일본교회 지도자들에게 제암리 학살사건을 소개하고 제암교회 및 제암리 화성 3·1운동 순국기념관을 재건하기 위한 모금에도 앞장섰다.

오야마 목사는 최약으로 치닫고 있는 한일관계를 회복하는 데 기독교인이 앞장서자고 권면했다. 그는 "일본 정부와 정치인은 역사적 사실을 외면하며 사과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날의 잘못을 사과하는 일본 기독교인이 있다는 걸 한국 사람들이 기억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신범 제암교회 원로목사는 "일본 기독교인이 다녀간 후 희생자들의 유족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제암리 화성 3·1운동순국기념관이 세워졌고 제암교회도 건강하게 거듭날 수 있었다"며 "독립을 외쳤다고 마을이 송두리째 없어진 비극은 인류 역사에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답했다.

순 목회자는 강대상 앞에서 손을 맞잡고 오야마 목사는 다시 눈물을 흘렸다. 이들은 이날 화성시청에서 서철모 시장과 면담한 뒤 용인 새에덴교회(소강석 목사)로 이동해 '한·일 교회 협력을 위한 사죄예배'에 함께 참석했다. 오야마 목사는 설교에서 "일본은 한국인의 나라와 땅, 생명과 이름 등을 빼앗았다"며 "여러분의 조상을 고통에 빠뜨린 데 대해 아무리 사죄의 말씀을 드려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오야마 목사와 방문단은 제암교회에 이어 이

곳에서도 함께 일어나 사죄의 의미로 허리를 굽혔다.

서울 남대문교회(손운탁 목사)에서도 100년 전 만행을 참회하는 일본 목회자의 고백이 이어졌다. 일본 그리스도교회(CCJ) 총회장 히사노 신이치로(삿포로 고토니교회) 목사는 이날 오후 남대문교회 삼일(3·1)기도회를 찾아 "일본이 한국 및 여러 아시아 나라에 행한 침략과 억압의 역사, 저항하는 데 게을렀던 일본교회의 죄책을 기억한다"며 "주님 앞에서 억압당한 이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히사노 목사는 '일본교회와 함께 드리는 예배'로 진행된 기도회에서 '화평케 하는 사람'이란 주제로 설교했다. 그는 "기독교인으로서 양국 간 대립이 깊어지는 장면을 보며 말할 수 없는 아픔을 느낀다"고 말했다.

CCJ는 1969년 야스쿠니신사를 정부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을 때 반대 의견을 냈다. 그는 "법안은 폐기됐지만 50년이 지난 지금도 재추진하려는 세력이 있다"며 "일본이 과거를 직시하고 진술한 사죄로 화해를 향해 나아가도록 계속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사회에서 사죄를 이야기하는 건 여전히 쉽지 않은 일이라고 고백했다. 히사노 목사는 "화평케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성경 말씀에 힘입어 평화를 위해 단절과 대립을 끝내고 함께 걸어가자"고 제안했다. CCJ에는 성도 1만여명, 30여 교회가 소속돼 있다.

"바른성경, 개역개정판 성경저작권 침해"

"성경번역본도 저작권 보호대상, 오역까지 답습..."

한국성경공회가 출간한 '바른성경'이 대한성서공회의 '개역개정판' 성경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성경의 번역본도 저작권 보호를 받는 창작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공예배에선 더 이상 바른성경을 쓸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성경공회는 대한성서공회의 개역개정판 성경의 신학적 노선에 반발해 자체 번역을 시작했다. 1999년부터 신약 학자 및 공문학자 등 40명이 참여해 2008년 9월 '하나님의 말씀 바른성경'을 출간했다. 대

한예수교장로회(예장) 개혁 교단이 이를 예배용 성경으로 채택했다. 예장합동에서도 강단용으로 사용해 달라는 헌의안이 총회에 올라왔으나 기각됐다. 대한성서공회는 예장합동으로부터 개역개정판과 바른성경의 차이점에 대한 공문을 접수해 검토하면서 바른성경의 표절을 인지했다. 2014년 7월 한국성경공회와 발행인 김태윤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1억원대의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성경공회는 개역개정판은 개역한글판에 의거해 맞춤법, 어휘 등을 수정 변경한 것이라 저작권 보호를 받

는 저작물로 볼 수 없다며 맞섰다. 재판은 5년 넘게 진행됐고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개역개정판은 개역한글판을 기초로, 새로운 저작물이라 볼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해 새로운 창작성을 부여한 저작물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경 번역에는 특정 단어, 표현, 구문에 대한 번역자의 특수한 판단이 가미되기 때문에 기존 번역의 제한적 개정이 아닌 새로운 번역을 목표로 할 경우 같은 본문이라도 번역마다 문장 구조, 어순, 어휘 선택 등에서 다양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부연했다.

"평화가 이어져 한반도 통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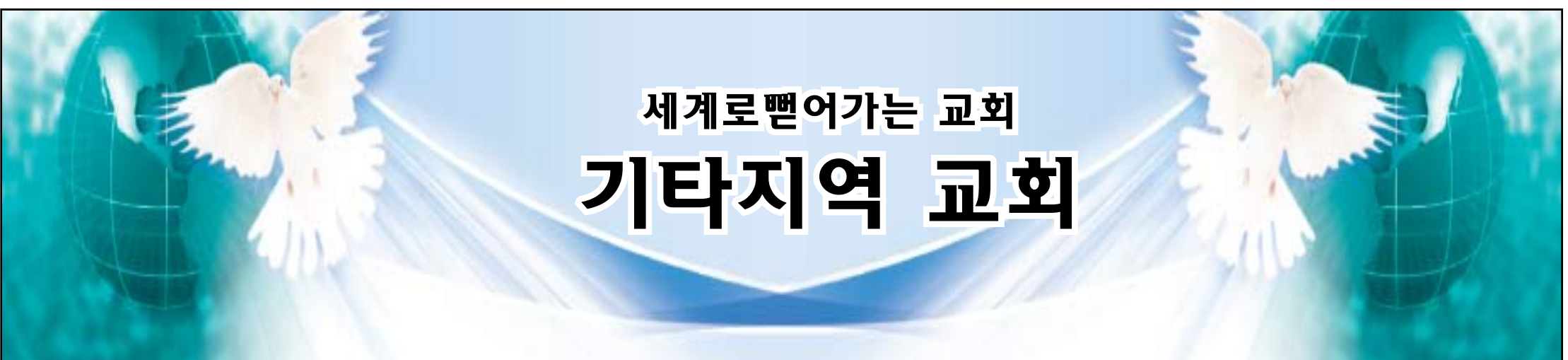
기윤실·복음주의 교회들 '3·1운동 100주년기억 기독교연합' 예배

3·1운동이 추구했던 평화의 정신을 이어받아 한반도 통일을 염원하는 예배가 열렸다. 예배에 모인 기독교인들은 3·1운동이 처음 일어난 탑골공원에 모여 선언문을 발표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공동대표 배종석·정병오·정현구)와 일산은혜교회(강경민 목사) 구리 두레교회(오세택 목사) 등 복음주의단체 20여개는 28일 서울 종로구 청어람홀에서 '3·1운동 100주년 개신교 기념예배'를 열었다.

이날 예배에서 배종석 목사는 "3·1운동은 온 교회가 나라를 살리기 위한 민족·민중 계몽운동, 전도운동, 기도운동, 거룩한 비전운동이었다"면서 "3·1운동의 정신과 순교신앙을 계승해 민족과 세계복음화를 위한 새로운 100년의 리더십을 갖자"고 말했다. 림형석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장은 "100년 전 기독교 학교의 기독교청년들은 3·1운동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데 동등한 역할을 했다"면서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는 세속주의 풍조에

자녀들을 빼앗기고 있다. 이제 우리의 소망은 다음세대가 대한민국의 의인 10명, 기드온의 300용사, 바알 우상에게 입 맞추지 않는 7000명의 기도용사가 되는 것"이라며 "독려했다."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 오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7635 Dean Morris Rd, Lansdale, PA 19046	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10:00 주요선양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벤델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한):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Fax: (410)344-3182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일예배: 오전 5: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영, 위, 안예배: 오전 10:45 (주일) 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살롯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 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일예배: 새벽 6: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대안행년부: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영, 위, 안예배: 오전 10:45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 Tel: (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www.kppccseattle.org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702)749-9929, www.omychurch.org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알칸사 제자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 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www.jej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예)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예배: 오후 7:30 Tel: 교회 (915)755-1490, 사택 (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배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542-0288, Fax: (215)542-8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
킬린노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전 7: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예배: 오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Tel: (254)535-1842(1), (254)501-4933(2)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E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703)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 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산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Tel: (804)560-7500, www.jlkc.org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요일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월-토) Tel: (253)536-6675, www.tacomacr.org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희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www.kucc.org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 N.Y.: Tel. (718)886-4000 ■ Fax. (718)886-4000 ■ Fax. (718)886-4000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선교의 창 (118)

송종록 목사
(대학선교)



선교적 시각에서 본 3.1운동

급변은 3.1 독립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 된 해이다. 그간 우리 민족은 숭한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여기까지 왔다. 일제 36년의 압제 속에서 해방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반도는 남북으로 잘리고 말았다. 이념적 대립은 6.25라는 동족상잔의 아픔을 낳았다. 포화의 잣대미 위에서 우리 선조들은 좌절하지 않았다. 그 와중에서도 풀뿌리를 뜯어 먹으며 산업화의 초석을 놓았다. 이러한 경제적 기반 위에서 우리 조국은 민주화를 이루어 냈다.

이제 우리 한국은 국력 12권 안에 들어 있는 선진나라가 되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부러워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갈 길이 멀다. 한민족 독립은 아직 미완성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흑암의 권세 속에 있고 남북은 여전히 대치하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동족끼리의 힘을 소진하지 말고 한결같은 통일길로 걸어가야 한다. 그것이 3.1운동이 남긴 정신이다. 뜻 깊은 해를 맞이하여 우리는 시간의 열차(Time Machine)을 타고 100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 그 때의 거친 숨소리, 만세 삼창이 들리는가? 조국을 위해 장렬히 산화한 선열들의 절기가 느껴지는가?

1. 역사적 배경
일본 왜구(倭寇)들은 1592년에서 1598년 까지 임진왜란(壬辰倭亂)을 일으켰다. 저들은 7년 동안이나 우리 민족을 살상하며 한반도를 축대밭으로 만들었다. 1895년에는 조선의 국모인 명성황후가 일본군의 암살단에 의해 시해(弑害)되었다. 일제는 1905년 11월에는 을사늑약을 통해 우리

3.1 운동은 일제의 만행에 저항하는 민족적 절기였다. 당시 1.3% 밖에 안된 크리스천들이었지만 독립운동을 주도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대를 불문하고 결기 있게 세상을 선도해야 한다.

외교권을 강탈했다. 이듬해 2월에는 통감부를 설치하고 행정권 사법권 경찰권을 빼앗았다. 1907년에는 조선 군대를 해산하고 헤이그 밀사사건의 책임을 물어 고종을 폐위시켰다. 그리고 마침내 1910년 8월에 국권을 빼앗았다. 폭력에 의해 조선을 강점한 일제는 언론, 결사, 집회의 자유와 정치, 사상의 자유를 박탈했고 생존권을 위협하고 한국인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의 자유까지 억압하였다. 도대체 일제가 무슨 권한으로 우리 민족과 국가를 이렇게 수탈하며 암살해 왔단 말인가?

2. 삼일운동의 거사
1919년 1월 21일에 고종황

제께서 승하하셨다. 사람들 귀전에는 고종이 독살되었다는 소문이 팽배했다. 그렇지 않아도 울분이 차 있었는데 그 소문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다. 마침내 거사는 3월 1일 서울의 파고다공원과 태화관과 전국 9개 지역에서 '독립선언서'를 선포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뒤 1년여에 걸쳐 우리나라 안과 만주·연해주 등 해외에까지 확산된 거족적인 항일민족독립운동이 일어났다. 삼일운동의 민족대표 33인은 기독교도 16명, 천도교도 15명, 불교도 2명이었다. 기독교 인사 16명을 직분별로 보면 목사 10명, 장로 2명, 전도사 3명, 집사 1명이었다.

박은식의 '한국독립운동지혈사'에 의하면, 1919년 3월 1일부터 5월말까지 3개월 간 독립시위에 참가한 인원은 2,023,098명, 피검자 46,948명, 사망자 7,509명, 부상자

3. 유관순 (柳寬順) 열사의 기도

삼일운동의 대표적인 사람은 유관순 열사이다. 그녀는 1916년 미국인 선교사의 추천으로 이화학당 초등부 3학년 여학생으로 선발되었다. 1919년에는 이화학당 고등부에 진학하였다. 그녀는 총독부의 휴교령으로 천안으로 내려와 후속 만세 시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가 체포되었다. 결국 일제의 가혹행위로 인해 1920년 9월 28일에 서대문형무소에서 사망했다. 열사의 기도문은 다음과 같다.

"내 손톱이 빠져 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 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오 하나님, 이제 시간이 압박했습니다. 원수 왜(倭)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주여,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 선교사들의 역할

삼일운동 당시 주한 외국 선교사들은 로마가톨릭의 54명을 포함하여 400여 명이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친일적 인사들도 있었으나 대다수는 정교 분리론에 입각해 정치적 중립을 지향하였다. 그러나 사건이 전개되면서 저들은 일제의 폭

력을 목도하며 의분을 느끼게 되었다. 특히 날조된 105인 사건 이후 "만행 앞에 중립이란 있을 수 없다"(No neutrality for brutality)"고 했다. 제암리 학살 사건에서 이런 인식은 더욱 심화된다.

시위자를 돕던 마펫(S. A. Moffett)은 일제의 만행이 훈족처럼 잔인하다고 비난하였다. 모우리(E. M. Mowry)는 독립선언서를 영역하고 피신한 학생들을 도와주었다는 죄명으로 6개월간 투옥과 강제노동을 당하였다. 캐나다장로교회는 1919년 6월의 총회에서 일본의 야만적 고문에 강경한 반대를 결의하였다. 원한경(H. H. Underwood)은 제암리교회 방화 살인사건 현장을 찍은 사진과 함께 일제의 만행을 폭로하여 그 사진이 미국 하원 의회록에 게재되기도 하였다. YMCA의 질레트(Gillett, 吉禮泰)도 시위 사실을 영국에 알렸다가 조선에서 추방되었다.

이렇게 선교사들은 만세운동에 대한 실상과 일제의 만행을 활영하고 기록하여 고발함으로써 한국의 독립에 대한 국제적 여론 형성에 기여하였다.

5. 3.1운동의 영향

이 운동은 1910년 8월 일제가 한국을 강점한 후 강요된 포화한 무단식민통치로, 실의와 좌절 속에 빠져 있던 한국민에게 민족 독립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과 소망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해 4월 11일 상하이(上海)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됨으로서 국민주권정부가 일어나고 거족적인 민족 독립운동의 구심점이 형성되었다. 또한 삼일운동에 참여했던 민중들의 정치의식이 고조되어 국내 민족운동 기반이 강해졌고, 국산품애용, 근검, 절제운동, 계몽운동 등을

로 발전하였다. 나아가 삼일운동은 일제의 식민통치수단인 무단정치의 한계를 깨닫게 해주어 비록 가식적 측면이 없지 않지만 문화정체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3.1 운동은 해외에도 영향을 미쳤다. 바로 중국의 5.4 운동 그리고 인도의 초대 총리를 지낸 자와할랄 네루 역시 영국에 의해 투옥되었을 때 딸인 인디라 간디에게 보내는 편지에 3.1운동과 유관순 열사를 찬양하며 이들을 본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맺음 말

삼일운동은 기독교와 민족주의는 자연스럽게 결합되어 "기독교적 민족주의(Christian nationalism)"를 형성하게 되었다. 기독교 신앙이 정의·자유·평화에 기초한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확대에 둘 수 있다면, 민족적 양심은 자주·평등·해방을 목표로 한 독립국가·민족자주의 건설에 있었다. 우리는 3.1운동에 참여한 선진들이 행동하는 양식으로 신앙과 나라 사랑을 일치시킨 사례들을 살펴본다. 이는 모세·삼손·다윗·다니엘의 노선과 같은 맥락이다. 결국 올바른 신앙이란 민족과 국가 사랑을 수반한다. 우리는 내일도 중요하지만 오늘 현실의 문제를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분단된 한반도는 비극의 상징이다. 어언 70년이 흘렀다. 우리에게 완전한 독립은 아직 오지 아니 했다. 이번 100주년이 된 3.1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한민족 크리스천들은 자아정화, 가정과, 교회의 담을 넘어 조국을 응시해야 한다. 그리고 피 묻은 십자가의 길을 가신 선열들의 숨결과 신앙과 행동을 본 받아야 한다. 유관순 열사의 기도소리가 귀전을 때리지 않는가?

jsong007@hanmail.net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의



기관지 확장증

기관지 혈관 손상으로 객혈이 일어나기도

기침을 할 때 피가 섞여 나온다면 의학적인 상상이 없는 일반인들은 몹시 놀랄 것이다. 객혈의 원인은 폐암이나 결핵과 같이 심각한 폐질환 때문일 수도 있지만 코피가 목 뒤로

넘어갔거나 감기 후에 오는 기관지염처럼 가벼운 질환으로 객혈이 생길 수 있다. 또 기관지 확장증과 같이 평소 가지고 있던 폐 질환 때문에 피가 나올 수도 있다.

- 옷가게를 하는 50대 중반

의 남성인 박 씨는 일주일 전부터 기침할 때마다 피가 섞여 나와서 병원을 찾아왔다. 약 2주 전부터 감기를 앓아왔던 박 씨는 감기증상은 거의 다 나았는데 기침이 그치지 않고 있다. 일주일 전부터는 붉은 피가 가래에 섞여 나오기 시작했다. 열이 나거나 숨이 찬 증상은 없었다. 박 씨는 20대 초반에 폐결핵을 앓았고 이 때문에 9개월간 약을 복용하고 완치되었다. 정기 건강검진 때마다 엑스레이 검사상 폐에 흔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왔다. 하지만 이 때문에 신체적으로 불편한 적은 없었다. 현재 복용하는 약은 없었지만 평소와 같

기에 걸리면 의사의 처방전 없이 항생제를 자주 복용해 왔다. 담배는 전혀 피우지 않았고 술도 마시지 않는 독실한 종교인이었다. 의학적 검진상 특별한 이상은 없었고 흉부 엑스선 검사상 결핵 후유증으로 보이는 상처가 있었다. 폐 기능 검사상 폐기능이 조금 감소해 있었다. 박 씨는 기관지 확장증으로 인한 기관지 내출혈로 잠정 진단받고 가래 검사와 항생제 치료를 시작했다. 항생제 치료에도 박 씨의 증상은 호전되지 않아 폐 단층촬영 검사를 해보니 폐 우측 상엽에 심한 기관지 확장증이 보였다. 가래 검사에서 현재 사용되는

항생제에 대한 내성균이 발견되어 다른 항생제로 바꾸어야 했다. 일주일 후 박 씨의 증상은 호전되었고 객혈은 없었다.

기관지 확장증
(Bronchiectasis)이란 만성 폐질환의 일종으로 기관지염, 폐렴이나 폐결핵 등을 앓은 후 기관지벽의 손상으로 인해서 기관지가 영구적으로 확장된 상태를 말한다. 감기나 폐렴 등의 염증 반응이 폐에 생기면 정상적인 기관지는 가래를 쉽게 바깥으로 배출해내는데 반해서 기관지 확장증이 생기면 이를 배출해내는 능력이 감소해서 쉽게 폐렴이나 농양이 생

길 수 있고 기관지 혈관을 손상해서 출혈을 유발할 수도 있다. 기관지 확장증을 앓는 경우는 감기 후에도 쉽게 폐렴으로 진행하거나 객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항생제를 조기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관지 확장증이 심하지 않은 경우는 평소시에 큰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지만 증상이 심해서 자주 폐 질환을 앓는 경우는 적절한 감염 치료와 지속적으로 객담을 배출해주는 것이 좋다. 적절한 치료로도 염증이나 객혈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는 증상이 심한 부위만 잘라내는 폐엽절제술이 필요하다.

중남미 4개국에 이어 유럽 지부 설립

글로벌한인뉴욕여성목회 제 27차 어머니기도회

글로벌한인뉴욕여성목회자연합회(회장 심화자 목사)는 지난 2월 20일 오전 10시 뉴욕순복음연합교회(양승호 목사)에서 제 27차 어머니기도회를 열었다.



글로벌한인뉴욕여성목회자연합회 제 27차 어머니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1부 예배는 심화자 목사 인도로 기도 김사라 목사, 성경봉독 정드보라 권사, 특송 오카니나연주, 설교 최근선 목사, 합심기도 안경순 목사, 헌금특송 남상보 집사, 헌금기도 조분자 목사, 전교보고 권케더린 목사, 축도 전희수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최근선 목사는 "예수님이 아는 사람"(요10:27-29)이란 제목의 설교에서 "예수님이 아는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책성

경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사람"이라며 "2019년이 벌써 2월도 다 지나고 있지만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될 때 예수님이 아는 어머니들이 돼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며 성경통독에 도전을 했다.

합심기도는 안경순 목사 인도로 △회개와 성령충만을 위해 △조국과 미국을 위해 △글로벌연합 글로벌뉴욕의 확장을 위해 △회장단과 임원 및 모든 회원목사들의 가정과 자

녀, 섬기는 교회를 위해 △어머니들의 제복기도를 놓고 뜨겁게 기도했다.

선교보고에서 권케더린 목사는 중남미 4개국 어머니기도회가 시작됨을 보고했다. 특별히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5일까지 전희수 목사와 함께 엘살바도르, 콜롬비아를 직접 방문해 어머니기도회를 세우고 현지 어머니기도회 지도자들을 세웠다고 보고했다.

성경적 가정의 가치관을 심어주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어머니들로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진 어머니기도회는 현재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콜롬비아 4개 지역에 지부를 설립했다. 한편 3월 중순에는 스코틀랜드(회장 김영란 선교사)에서 시작될 유럽어머니기도회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제 28차 어머니기도회는 3월 20일에, 29차 어머니기도회는 4월 17일 콜롬비아 회장 김혜정 선교사를 강사로 초청한다.

(기사제공: 글로벌한인뉴욕여성목회)

좌파의 화려한 컴백이 보인다.

최근 정부들이 어떤 정책임안자들의 예상보다 큰 돈을 빌릴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의 무제한 부채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은 돌팔이 의사의 진단이다. 밀레니얼 사회주의자들은 시장에 대한 불신 때문에 환경문제에서도 그릇된 결론에 도달한다. 이들은 민간의 혁신을 두려워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세수중립탄소세의 역할을 전면 부정하고, 중앙집권형 계획과 그린에너지에 대한 대규모 예산지출을 지지한다.

이들의 "민주화"된 경제의 비전은 규제력을 집중화하기보다는 확산시키는데 있다. 지역주의를 지지하는 본지(이코노미스트)에게도 어느 정도 매력 있는 비전이기는 하지만, 지역주의의 전제조건은 투명성과 책임성이다.

코빈의 주장대로 영국의 상하수도 시설이 다시 국유화된다면 지역 민주주의의 좋은 예가 될 것이라고는 기대하기 어

렵다. 미국에서도 지역 권한의 강화는 종종 외부인의 배제와 님비현상(NIMBY, 공공의 이익에는 부합하지만 자신이 속한 지역에는 이롭지 않은 일을 반대하는 행동을 뜻한다. Not In My Backyard의 약자로 쓰레기 소각장, 장애인 시설, 노숙자 시설, 공방, 화장장, 교도소, 임대주택과 같이 많은 주민들이 혐오하는 특정 시설 또는 땅값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시설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들어서 것을 반대하는 사회적 현상을 말한다)과 같이 좋지 못한 결과로 이어졌다. 관료주의는 어떤 레벨에서도 특수 이익집단의 영향력을 강화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가장 순수한 형태의 권력위임은 자유시장에서의 개개인에 대한 위임이다.

신 좌파의 민주화 열망은 기업에까지 적용된다. 밀레니얼 사회주의자들은 기업의 주식을 노동자들이 나눠 소유하게 되기를 원한다. 독일과 같은 나라에 그런 전통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자들이 기업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

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세계화로 인한 원격 조종에 대한 의심 때문이다. 노동자들에게 변화를 거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은 곧 경제가 경직화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역동성이 떨어지는 것은 곧 경제적 기회도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으로, 국가는 기업이나 일자리를 변화로부터 보호하기보다는 시장이 효율적으로 돌아가도록 하고 일자리가 아닌 노동자들을 정책의 포커스로 삼아야 한다. 정부는 재분배에 집착하기보다 지대추구를 줄이고 교육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기후변화는 시장의 장치와 공적투자를 함께 사용할 때 해결될 수 있다. 밀레니얼 사회주의가 현 상황에 신선한 도전장을 내미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구시대의 사회주의와 마찬가지로, 집단의 행동은 부패할 수 없다는 믿음과 개개인의 활력에 대한 무분별한 의심으로 얼룩져있다. 정말로 리버럴이라면 이에 반대해야 할 것이 다!

선교 펴기

니카라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토론토, 메릴랜드, 시카고, 로드아일랜드, 뉴저지, 뉴욕에서 참여한 83명의 단기팀과 15가정의 니카라과 선교사들이 함께 섬긴 2019 니카라과 전도대회를 마친 소감은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입니다.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된 니카라과 사태로 인하여 가장 아픔을 당한 마사야주와 까라소주에서 거행된 이번 전도대회는 첫 날인 22일 까라소주에서 10,000명 회집에 317명이, 둘째 날인 마사야주에서 11,000여명 회집에 248명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니카라과 전도대회를 시작으로 이번 대회까지 모두 10번의 전도대회를 주최한 해외한인장로회(KPCA) 뉴욕노회의 선교 열정에 더하여 지난해 출범한 니카라과복음화선교회(Nicaragua para Cristo Mission-NPCM) 주관으로 거행된 2019 니카라과 전도대회는 마사야주, 까라소주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대회였습니다.

교회와 선교회를 넘어서서 모두 8개조로 편성된 단기팀은 한 하나님을 섬기는 One Team으로 교사강습회, 개인전도, 중보기도, 치과사역, 침술사역, 안경사역, 미용사역, 네일사역, 어린이사

역등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자는 작은 몸짓들이었습니다. 사역을 마친 후에도 전도대회장 입구에 서서 물밑듯 밀려오는 참가자들을 열렬히 환영하는 감동이 이어졌습니다.

전도대회 주강사인 김중훈 목사(니카라과복음화선교회)의 메시지와 그리스도에게로 초청하는 시간에도 함께 뜨거운 영접 기도와 함께 저들의 삶을 축복하는 단기팀과 선교사들의 기도는 그칠 줄 몰랐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이번 전도대회에도 이를 동안 연 450대의 버스가 동원되었는데 아무런 사고 없이 대회를 마칠 수 있었음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년 전도대회를 기다리는 니카라과 현지인들과 돌아가서 열심히 1년간 준비해서 내년에도 무조건 참가하겠다는 다짐들이 단기팀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니카라과에 여전히 우리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019 니카라과 전도대회를 통하여 니카라과를 향한 신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한 자락이나마 대하는 은혜와 축복을 함께 누렸습니다.

“Carazo para Cristo”
“Masaya para Cristo”
“Nicaragua para Cristo”

이동홍 선교사
missionnica21@gmail.com

에스와티니

2019년도 첫 번째 소식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믿이니라”(고린도전서 15장 58절).

나라 안팎이 온통 2차 북미 정상회담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결정소식이 들리면서 더욱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생각과 기대만으로는 결코 한반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주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하며 이번 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은 봄의 문턱에 들어서서 새로운 봄의 기운들이 움트기 시작할 때인데 이제는 미세먼지라는 것이 우리들의 삶을 더 어렵게 힘들게 한다는 점이 안타깝지만 주께서 주실 건강함과 평강으로 잘 이겨내시리라 믿습니다.

이곳 에스와티니도 이제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여름은 비도, 바람도, 천둥번개도 그리고 우박도 자주 내린 좀 특이한 여름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물러가겠지요.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려운 나라 형편이지만 풍성한 가을의 수확으로 인해 마음들이 조금이라도 위안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5년 전 우리들의 생각으로 는 다 잘 될 것으로 믿고 시작한 의대개설 문제가 난관에 봉착하여 오랜 기다림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 생각과 뜻과 시간보다 주님의 시간과 생각과 뜻이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금년에 기독교대학교의 새로운 팀과 다시 시작한 일이 주의 시간과 뜻에 부합한 일하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5년 전과 달리 우리는 잘 돌기만 하면 되는 입장이라 한결 마음이 가벼운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만 매 순간 주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놓치지 않고 순종하는 나날이기를 기도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에스와티니의 부족한 의료 현실을 돕기 위한 전문의 초청사역은 지난 1월 13일 충남대병원 나명훈교수팀(흉부외과)의 방문으로 금년도 사역이 시작되었는데, 나교수님 팀은 금년이 3번째로 방문하여 섬겨 주셨습니다. 예정된 6차례의 흉부외과학회 팀의 방문수술이 잘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합니다. 또 구정을 기해서 3번째 방문하신 대전 배사랑내과 이승민 원장님(소화기내과)이 위, 대장 내시경으로, 또 초창기부터 시작하여 금년에 4번째 방문하신 전희재 원장님(흉부외과) 윤명희 교수님(부산대 이식외과) 부부팀이 흉관수술과 금년에 처음 시도한 하지정맥류 수술로, 참으로 열심히 섬겨 주셨습니다. 주께서 이들의 수고를 후히 갚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3월 3일에는 비뇨기과학회

과건으로 금년도 첫 팀인 추민수 교수님(동탄성심병원), 심명선 교수님(안양성심병원)이 방문하여서 망가야네 정 부병원에서, 주로 성인전립선 비대증 환자들의 수술을 담당하실 텐데 잘 준비되고 잘 진행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3월 24일에는 원주연세의대 김희만 교수님(소화기내과)이 방문하여서 3주간 제반 환자들의 진료와 현지 의료진에 대한 내시경 교육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잘 준비하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첫 주에는 금년도 2번째 흉부외과학회 과건팀으로 임정 교수님(분당서울대병원), 박찬혁 간호사팀이 방문하여 이곳의 정부병원들에서 준비된 환자들을 수술하고 또 몇 가지 다른 환자들에 대한 자문 및 수술도 담당할 것입니다. 잘 준비되고 좋은 결과들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심초음파학회와 의 협력문제, 소아외과분야 및 성형외과분야 수술 문제, 피부과분야나 통증치료분야 등 각 분야별로 함께 할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서 지원계획이 잘 세워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창기부터 우리들과 함께 한 한국의 NGO인 The Right Hands와의 협력사역인 시골 지역 초등학교 여학생들에 대한 위생패 지원사업과 빈곤가정 아동급식 지원사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에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선하게 인도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구간다 시절부터 10년이 넘도록 꾸준히 후원해주신 여러 후원자님들의 한결같은 성원으로 부족하지만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1, 2월에는 6분(김상희, 정영택, 나명훈, 윤완규, 오혜영, 김미리)이 특별 후원으로 또는 정기후원으로 새롭게 또는 다시 함께 해주셨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귀한 후원금 잘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공급회사인 Integra에서 대한흉부외과 학회를 통해서 흉관수술에 필요한 기구 1세트(이천만 원 상당)를 기증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 여기에 최소 2세트를 준비되었기에 오는 팀들이 따로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게 되었습니다.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다음 소식도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내내 평강이시기를 기도합니다. 에스와티니에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그러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김선영 드림

기도제목

- 필요한 장, 단기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기를
- 의대문제에 대한 주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을 잘 바라보며 순종할 수 있도록
- 새롭게 시작한 국회의원들과 내각이 국민들의 고충을 잘 듣고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 이곳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한인 선교사님들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잘 감당해 나가시도록

sykim@cnu.ac.kr

제8차 해외 기독교상담 교육 및 자격고시 실시 남미아태아대학원, 한국기독교가정상담협 유치...11명 졸업

남미아태아대학원(강성철 선교사)은 한국기독교가정상담협회(이사장 정한교, 회장 오태균 박사)를 유치해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1일까지 한인제일 침례교회(장호경 목사)에서 제8차 해외 기독교상담 교육 및 자격고시를 실시하고 11명의 졸업자들을 배출했다.

아침 일찍부터 황혼 저녁까지 집중적으로 강의하고 시

를 치렀는데 기독교 가정상담학, 발달심리학, 위기상담학, 가정상담학 등을 오태균 박사와 이은주 박사가 강의를 한 후 고시를 치렀다.

동 협회 정한교 이사장은 보이징 슈하스카리아에서 부부 및 자녀들을 초청, 식사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고 가정상담사(민간 2급) 자격증을 수여하고 기념사진을 찍으며 가족과



뉴욕실선교학교 제 28기 개강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미아태아대학원은 앞으로 중남미 각 나라에서 사역하는 목회자 및 선교사, 평신도 리더들 가운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는 지도자들

(기사제공: 남미아태아대학원)



캘리포니아신학대학원 남가주한인동문회 정기모임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세미나, 회보발행 등 사업계획 발표 캘리포니아신대원 남가주한인동문회 정기모임

캘리포니아신학대학원(California Graduate School of Theology, Cal Grad) 남가주 한인동문회 정기 모임이 3월 3일 오후4시 사이프레스에 위치한 예심교회(담임 정찬군 목사)에서 개최됐다.

동문회장 박중승 목사의 인도로 드러진 1부 개회예배에서 동문회 고문으로 위촉된 박대근 목사(전 재미교신 총회장)는 “시대가 필요한 사람”(역대하12:32)이란 제목의 설교에서 “마지막 시대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목사들로서 무엇보다도 현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과 아울러 강력한 영적 리더십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시대와 현실을 분별하며 직시할 줄 아는 능력 있는 영적 지도자가 돼야 할 것”을 촉구했다.

2부 순서인 회무처리에서는 회칙 통과와 금년도 사업계획으로 △동문회 주보 세미나 △동문회 회보발행 △2020발전을 위한 협력 등의 안건을 가결한 후 통성기도로 마쳤다.

한편 총동문회 주최로 금년 10월 18일-19일, 이틀간에 걸쳐 미국동문들과 한국동문들이 함께하는 개교50주년 기념 총동문회 모임과 세미나가 개최될 예정이다.

본교는 1969년 개교 이래 현재까지 약 6천여명의 졸업생들을 배출했으며 TRACS(전미기독교대학협의회) 정회원으로도 가입돼있다.

▲한인동문회 연락처: (714)336-1514 박중승 목사 (기사제공: 캘리포니아신학대학원 남가주한인동문회)



한인가정상담소 심리상담 프로그램 무료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부부갈등, 인간관계, 분노조절... 한인가정상담소 심리상담 프로그램 무료 지원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정조)가 부부갈등이나 인간관계, 분노조절, 스트레스 관리 등으로 심리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LA카운티 정신건강국과 아동보호국 프로그램을 통해 일정 자격을 갖춘 한인들은 무료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최근 도입된 LA 정신건강국의 PEI(Prevention and Early Intervention) 프로그램 중 하나인 스텝케어(Stepped Care)는 수혜 조건이 대폭 완화돼 보다 많은 한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본 프로그램은 연령, 신분, 인증, 보험유무에 상관없이 삶의 큰 변화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신적 고통이나, 갈등, 관계의 문제를 호소하는 자들이

6-8개월간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최근에 정신과 관련 진단을 받았거나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경우는 제외다. 또 다른 PEI 프로그램 중 하나인 시킹 세이프티(Seeking Safety)는 메디컬이 있는 18세 이상 성인이 트라우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최장 18개월간 무료로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LA 정신건강국의 ISM 프로그램은 LA와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21세 이상 한인계 성인 중 메디컬이 있거나 혹은 건강보험이 없는 저소득층 사람에게 무료 상담을 제공한다. 이밖에도 최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보호자들을 위한 셀프 페이(Self-pay) 상담도 소득에 따라 차등해서 제공하고 있다.

(기사제공: 한인가정상담소)



삼일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범동포 연합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외치고 있다

삼일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식 대한민국민회기념재단 주관 범동포 연합

삼일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범동포 연합기념식이 대한민국민회 기념재단 주관으로 3월 1일 오전 11시 남가주새누리교회(담임 박성근 목사)에서 열렸다.

스티브강 LA한인회 부회장과 넨시윤 Asians in LA Media 대표 사회로 시작된 기념식은 국민의례, 한기형 목사(남가주교협회장) 기도, 이연주 회장(미주 3.1여성동지회) 3.1독립선언서 낭독 로라전 LA한인회장 대회사, 김완중 LA총영사 경축사(문재인 대통령 경축사 대독), 김동국 명예대회장 기념사로 이어졌다.

이어 장숙남 국가보훈처 혁신행정담당관, 랄프안(도산 안

창호 선생 3남), 최석호 가주하원의원, 서영석 미주평통 LA협의회 회장이 축사했고 손아영 어바인고등학교 12학년 학생이 차세대 대표로 축사했다.

이어서 테너 최원현 씨가 축가를 불렀으며 권영신 대한민국민회 기념재단 이사장 및 총괄준비위원장과 로라전 회장이 미주독립유공자 후손 소개 및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LA팍스코랄, 미주3.1여성합창단, 코헝가 소년 소녀 합창단 연합합창단(지휘 최원현)이 3.1절 노래를 부른 뒤 모든 참석자들이 단상에서 만세삼창을 부르고 마쳤다.

(박준호 기자)

영어로 보는 성경 (9)

English Bible



유상열 목사 (리빙스톤교회)

본 강의는 영어로 말씀을 읽는데 필요한 기초적 도움을 주고자 하는 데에 목표를 둔다. 따라서 깊은 신학적 해설이나 논쟁은 피하고 각권의 주요말씀 한 두 구절씩 성경의 순서를 따라 진행한다.

Judges 2:16,17

16) Then the Lord raised up judges, who saved them out of the hands of these raiders.
17) Yet they would not listen to their judges but prostituted themselves to other gods and worshiped them. Unlike their fathers, they quickly turned from the way in which their fathers had walked, the way of obedience to the LORD' commands. (NIV 1984)

WORD & IDIOM

* then: 그때, 그 후에 * raise up ~: ~을(를) 일으키다, 세우다 * save A out of ~: ~에서 A를 구하다. * raider: 침략자 * would not V ~: ~를 하려고 하지 않다. * prostitute themselves to ~: ~에게 그들 자신의 몸을 팔다. * unlike ~: ~와(과) 다르게 * turn from ~: ~에서 벗어나다. ~를 버리다. * obedience to ~: ~에 대한 순종

GRAMMAR

16) Then the Lord raised up judges.

그때에 주님(이) 세우셨다 사사들(을) = S+V+O(형식)
who saved them out of the hands of these raiders.
사사들 구했다 그들을 에서(로부터) 침략자들의 손 => 그때에 주께서 사사들을 세우셨다. 그리고 사사들은 침략자들의 손에서 그들(Israelites)을 구했다.

* 위 문장은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용법의 구문이다. judges가 선행사이며, 선행사를 받는 관계대명사 who 앞에 comma(,)가 있다. 이 경우의 해석은 선행사에 이어서 <그리고, 왜냐하면, ~이기 때문에, ~일지라도> 등의 의미를 적절하게 넣어 계속 해석해 나가면 된다.

17) Yet they would (not) listen to their judges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다 (but) prostituted themselves to other gods and worshiped them.
그러나 다른 신들에게 그들의 몸을 팔았다 그리고 그들을 경배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사사들을 청종하지 않고 다른 신들에게 그들 자신의 몸을 팔며 그들을 경배하였다.

* 위 문장의 (not) ~ (but) 은 연결하여 해석해야 자연스럽다. 즉 not A but ~: <A를 하지 않고 ~를 하다>의 의미를 살려 해석한다. 동등사 would는 will의 과거형만이 아니라 <현재의 소망, 공손, 과거의 불규칙한 습관, 과거의 추측 또는 위와 같이 주장이나 의지의 표현 등의 다양한 용법으로 쓰인다.

Unlike their fathers, they quickly turned from the way in which their fathers had walked, the way of obedience to the LORD' commands.
그들의 조상들과 다르게 그들은 빠르게 그 길로부터 벗어났다
그들의 조상들이 걸어 왔던 주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의 길 =>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과 다르게 그들의 조상들이 걸어왔던 그 길, 즉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순종의 그 길로부터 속히 벗어났다.

* in which their fathers had walked(had+pp)는 그들이 벗어난 그 길이 무슨 길인지를 수식하는 관계사 절이며, the way of obedience to the LORD' commands는 명사구로서 the way(그 길), 즉 그들의 조상들이 걸어왔던 길이 무엇인지를 comma(,) 뒤에서 다시 한 번 보충설명을 해주고 있다.

STUDY & THOUGH

하나님께서 사사들(Judges)을 세우셔서 노략자들에게 의한 고통으로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해 내셨다. 그러나 그들은 타락한 삶의 방향을 돌이키지 않고 이방신들에게 몸을 팔며 계속해서 음란한 삶을 즐겼다.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정결을 지켜야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에 매료되어 하나님을 떠난 이들의 모습이 흑사라도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This is an image of stubborn and deeply rooted sin. Does such a vicious sinful cycle repeat itself in our lives?

livingstonech@gmail.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캄보디아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감독의 자격조항(I)(딤후1:6)찬23장

그래서 사도는 장로(목사)를 세우는 일에 어떤 기준을 제시합니다. 한 사람의 신실한 목사는 교회를 진리의 터가 되게 함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직분이기 때문에 신실하게 다뤘습니다. 목사는 어떤 자격을 필요로 합니까? 첫째,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는 자여야 합니다(6). 관계 생활의 기본인 가정에 한 남편으로서 그리고 한 아버지로서 신실함과 순종함을 가져야 합니다.

화 감독의 자격조항(II)(딤후1:10-16)찬33장

또 감독은 이리들을 분별해 책망하고 권징해 교회의 성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어떤 종류의 일들이 생깁니까? 첫째, 거짓말하는 자(10)가 생깁니다.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시작하는 거짓과 외식은 남을 속이는데 능수능란하게 합니다. 진리의 집에서 거짓이 세력을 얻으면 이는 타락한 증거입니다. 양심에 걸리는 어떤 거짓도 용납하지 말고 철저히 살피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수 교훈에 합당한 생활(딤후2:1-3)찬7장

이런 생활은 가족에게 제한되지 않고 온 교회에 그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이 각 연령마다 나타나야 합니다. 인생 경험이 많은 노인인 남자가 해야 할일이 무엇입니까? 첫째, 늙은 남자는 절제, 경건, 신중함, 믿음, 사랑, 인내에 온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구하는 6가지 조항(딤후2:11)에 더해진 이유는 모든 교회는 경건의 열매로 성숙해져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목 교훈에 합당한 생활(딤후2:4-8)찬8장

계속 사도는 다양한 남녀교인의 생활원리를 제시합니다. 첫째, 젊은 여자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과 순종으로 집안일을 돌보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4-5). 이 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고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런 경건으로 무장한 새벽이슬 같은 젊은이가 교회에 많아야 합니다. 둘째, 젊은 남자들은 신중하고 선행과 단정함으로 바른 말을 해야 합니다. 디도 목사 자신이 본을 보이며 이것을 가르쳐 전하는 설교가 권위를 나타내야 합니다. 험악한 세상에서 공장의 별처럼 빛나는 삶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수록 젊은 날에 성령의 환상을 보며 자기를 산제사로 드림으로 주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런 젊은이들이 이 시대에 요구됩니다.

금 교훈에 합당한 생활(딤후2:9-10)찬9장

교회생활은 가정만 아니라 사회생활의 관계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중 중들이 주인을 섬기는 방법에 관해 사도는 언약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첫째, 범사에 순종해야 합니다(9). 주종관계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주종관계의 적용이어야 합니다. 둘째, 신실해야 합니다(9-10). 거슬러 말하거나 흠치는 일을 금해야 합니다. 주인의 지시를 잘 따를 때 그 은혜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교훈을 빛나게 해야 합니다(10). 이런 경건의 행위가 그리스도와 그의 교훈을 세우는 일이고 교회를 강하게 세우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명을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 겸손한 자를 사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교만으로 찬 세상에 겸손한 종의 도를 걸어 새 역사를 이룹시다.

토 선행에 열심있는 백성(딤후2:11-14)찬179장

언약백성의 모임인 교회는 영적선행에 열심을 가진 백성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지향할 목표이고 전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십니까? 첫째,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셨습니다(11). 행위를 따라 시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은혜를 나타내심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구원의 모든 것이 은혜의 열매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양육하십니다. 구원 후에 하나님은 2가지 일을 하계하십니다. 불경건과 세속에 속한 것을 모두 버리게 하는 일과 신실하고 의롭고 경건함을 추구하게 하십니다(12). 그리고 산 소망과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셋째, 그의 대속의 효력이 나타나게 하십니다(13-14). 무엇보다 모든 은혜와 경건의 원천인 그리스도 속량의 은혜를 즐기게 하십니다.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Tel: (02)525-776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0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저녁예배: 오후 7:30 Tel: (031)397-6754~5 군포시 금정동 870-10호					
금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3770 서울시 용문구 영우동 340-(131-231)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항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예배: 오후 9: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평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345-8676(교무부)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	새에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3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절민이들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 (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3:30 새벽기도회: 오전 5:00 새벽2부예배: 오전 6:30 Tel: (82)2-2646-3181~3, (8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 520 (158-808)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www.seongsil.or.kr Tel: (82)2-996-9998, Fax: 9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동 421-49 (142-073)	성일교회 담임목사: 윤상욱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7:00 주일3부예배: 오전 9:00 주일4부예배: 오전 11:0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토요일은 쉰다)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강서구 목3동 713-26호
수정교회 담임목사: 이성준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로동 416-4(404-270)	승중교회 담임목사: 김철승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사택: (02)389-2235 (110-290) 서울시 서초구 인사동 137 번지	시온교회 담임목사: 김철승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00(매일-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기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Tel: (82)2-842-1968, 사택: (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 1동 63-3, (150-051)	신천교회 담임목사: 박영석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2:3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6:00 Tel: (02)418-0481 Fax: (02)422-0751 서울시 송파구 백석로 219 (잠실동) www.shincheon.org	신촌교회 담임목사: 박노훈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3:30 Tel: (82)2-3142-6080, Fax: (82)2-336-4188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8-45 www.estincheon.org	안암 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준호 주일1부예배: 오전 9:2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Tel: (82)2-926-4508 서울시 용인시 안암동 501-1 www.anamjeil.or.kr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토/일/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봉암로 415 www.yangok.org	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82)2-889-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신일권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30 Tel: (82)2-482-6881, Fax: (02)942-6882 (136-831)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7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승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Tel: (82)3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4동 294-1(10403-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48-23	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최현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정동 259-12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준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0:00 주일5부예배: 오전 11:30 주일6부예배: 오후 1:30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인시 이천동 302-67 (140-031)

인/터/뷰 민찬기 목사(OMTC 이사/예수인교회 담임)

본질 추구하는 공동체...전도와 세계선교 감당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세계선교회(GMS) 미주 OMTC(Overseas Mission Training Course) 제 6기 훈련 수료식 및 선교사 인준식과 세미나를 위해 민찬기 목사(OMTC 이사/예수인교회 담임)가 LA를 방문했다. 본지에서는 수료식 취재를 마치고 한국으로 향하는 민찬기 목사와 짧은 인터뷰를 통해 목회와 사역이야기를 들었다.

교회 소개를 부탁하자, “예수인교회는 본질을 추구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예배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공동체”라며 “전도와 세계선교를 감당하고 이웃을 섬겨 나가며 예수 안에서 친밀한 지체로서의 교제를 추구하고 지역사회에 열려있는 공동체가 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교회”라고 설명하며 자신이 목회자가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민찬기 목사는 어린 시절 할머니를 따라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한다. 할머니는 전도지를 보고 동네에서 최초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고 할머니를 따라 중학교 2학년부서는 새벽기도, 기도원집회, 부흥회 등을 따라다녔다. 중학생 때 변산구국 기도원에서 부흥강사의 설교 중 야곱의 일대기를 재미있게 들었는데, 그 때 마음의 찢림이 일어났고, 눈물로 회개하는 일이 있었다고 회고한다.

그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새벽기도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참석했던 교사강습회에서 김익두 목사님을 비롯한 순교자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자신은 목사가 되기보다는 순교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바로 신학교에 진학했다.

신학생 시절 장흥교회에서



6기 선교사 훈련 수료식 및 인준식 행사에 참석하는 민찬기 목사. 장소: 그레이스미션센터, 일시: 2019년 2월

전도사를 하고 그곳에서 강도와 부목사로 성장했다고 한다. 부목사 시절 고양군 작은 마을, 무허가건물에 열두 명 가량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그곳에 오겠느냐는 제안을 받았다. 무허가건물도 임대료를 내는지라 목사의 사례비도 제대로 못 주는 교회였다. 민목사는 교회 안에 장로와 젊은 집사 등 신실한 사람 몇 명 있는 것을 알았고, 개척한다는 심정으로 부임했다.

부임하자마자 돼지 막사를 교회로 개조했다. 땅 한 평, 집 한 채 없는 교회지만 종교 목재를 사서 예배당 크기를 늘리는 데 교인들이 모이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당시 신도시 개발 발표가 되면서 그곳 주민들의 이주 현상이 생기고 교인들도 줄어들기 시작했다. 민

목사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일하셨다. 당시 고양시에 공영개발을 하면서 50만평의 택지를 조성하고 아파트 단지를 짓게 됐다. 그리고 토지개발공사에서 종교 부지를 분양한다는 정보를 얻게 됐다. 땅이 없어도 조성원가에 매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242평을 계약했다. 그러나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다. 너무나 안타까워 교단신문사를 찾아가 광고를 부탁하기도 했으나 교단에서는 개척과 성장을 돕는 전략 자체가 없어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런데 집을 가진 성도 한 분이 자기 집을 건축현금으로 내놓았다. 부지 대금의 60%만 겨우 치르고는 나머지는 한국

토지신약에 적금을 드는 조건으로 신용보증을 받아 토지사용 승낙을 얻고 예배당을 건축하기에 이르렀다. 건축 당시에는 가장 열악한 지역에 교회도 가난했으나 지금은 가장 성장하는 교회가 됐다.

민목사는 농촌에서 자랐으므로 자신을 귀빈이나 귀족이 아닌 서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서민목회를 지향한다. 성도들에게는 압력을 넣기보다는 헌신을 기다린다.

민목사는 교인들의 헌신을 유도하기보다는 먼저 훈련하

주제를 이야기로 만들어서 설교하면 교인들은 예배를 지루해하지 않는다. 지금은 잠언을 강해하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이 내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하나의 구절에서도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 성도들의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한다.

예수인교회는 선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미 10여 가정을 해외 선교사로 파송했다. 선교사들이 생활에 걱정하지 않고 마음껏 활동하고 사역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전액 부담하는 파송이다. 파송지역은 인도네시아, 태국, 세네갈, 파키스탄, 뉴질랜드 원주민, 미얀마 로힝야족 등.

현재 예수인교회는 커다란 지역사회 복지센터를 운영하

미용 봉사를 하고, 열악한 주택에 사는 분들에게는 남산교회 중심으로 주택수리 사업으로 봉사도 담당한다. 교회 안에는 사회봉사 위원회가 있어서 이 일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감당한다.

현재 예수인교회에서 주관하는 문화강좌만 해도 약 100여개가 운영되고 있다고. 적은 비용으로 연령대에 따라 참여하게 한다. 성인들에게는 어린 시절에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기초부터 가르친다. 악기, 취미, 언어, 스포츠 등의 과정이 있다.

청소년들에게는 오케스트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었다. 이런 강좌와 봉사 등이 거의 염가에 이뤄지는데, 자원봉사자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기에 가능하다. 예수인교회의 문화강좌는 백화점의 문화센터보다 몇 배가 더 많다고 귀띔한다.

민찬기 목사는 지금부터 은퇴 후를 생각한다. 그는 은퇴 후에 건강하기만 하면 직업을 갖고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한다. 교회는 멀리 내다보고 후임자를 물색해 담임목사 교체할 때, 교회에 의존해 살지 않으므로 사업을 해 자신의 삶과 새로운 사역을 진행하고 싶다고 말한다. 그는 재정적으로 자립해 자비량 선교를 하되, 비거주 선교사로서 문화선교와 돌봄선교를 꼭 하고 싶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짧은 시간 나는 대화 속에서 성공적인 목회를 이루고 있는 민찬기 목사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곳 미국까지 선교사 훈련 세미나를 위해 달려온 것은 이처럼 선교사들을 사랑하는 열정의 결과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성자 기자)

10여 가정 해외선교사 파송, 전액 지원 지역사회 위한 복지센터, 문화강좌 운영

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열려있는 교회가 되고 지역을 위해 도움이 되고자 복지센터와 교회를 한 건물에 동시 운영을 생각했다.

그리고 대형복지센터를 짓고 그 위에 예배와 교육을 위한 공간을 설계했다. 1층은 복지센터에 카페, 다양한 문화강좌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이 있다. 지하는 체육관을 설계해 청소년들의 연습장으로 제공한다.

복지센터는 정부의 지원을 전혀 받지 않는다. 또한 정부도 책임을 지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차상위 계층의 사람들에게는 주중에 점심을 대접한다. 그것도 집밥으로 대접한다. 지역에 이

해설교를 한다. 대표적으로는 사계발 훈련, 제자훈련 등이 있다. 제자훈련도 제자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속에 은사가 무엇인지,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를 본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실현에 중요하게 사용될 만한 장점을 보고,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성도의 관심을 찾는다. 그리고 은사에 따라 직분을 맡게 했다고 전한다.

민목사의 설교는 철저한 강해설교. 그는 성도들에게 들려지는 설교를 지향하고 있다고. 설교자 혼자 외치기보다는 교인들의 삶을 이해하고 교인들의 공간을 이끌어내는 이야기 설교를 한다. 설교 할 때 너무나 빠른 이야기는 하지 말자고 다짐하고는 주제를 잡아 강

해설교를 한다. 민목사의 설교는 철저한 강해설교. 그는 성도들에게 들려지는 설교를 지향하고 있다고. 설교자 혼자 외치기보다는 교인들의 삶을 이해하고 교인들의 공간을 이끌어내는 이야기 설교를 한다. 설교 할 때 너무나 빠른 이야기는 하지 말자고 다짐하고는 주제를 잡아 강

해설교를 한다. 민목사의 설교는 철저한 강해설교. 그는 성도들에게 들려지는 설교를 지향하고 있다고. 설교자 혼자 외치기보다는 교인들의 삶을 이해하고 교인들의 공간을 이끌어내는 이야기 설교를 한다. 설교 할 때 너무나 빠른 이야기는 하지 말자고 다짐하고는 주제를 잡아 강

해설교를 한다. 민목사의 설교는 철저한 강해설교. 그는 성도들에게 들려지는 설교를 지향하고 있다고. 설교자 혼자 외치기보다는 교인들의 삶을 이해하고 교인들의 공간을 이끌어내는 이야기 설교를 한다. 설교 할 때 너무나 빠른 이야기는 하지 말자고 다짐하고는 주제를 잡아 강

(이성자 기자)

책 소개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저자 임승옥 선교사



책자로 누구나 쉽게 읽어갈 수 있도록 구성된 본서는 임승옥 선교사의 자신의 생활 속에서 겪은 치유, 용서, 회개, 관계의 치유와 회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서는 1부 '주님과 함께', 2부 '용서해 줄 수 있겠니?', 3부

생활 속에서 겪은 치유, 용서, 회개, 회복...

삶속에서 겪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다.

또한 부록으로 기도문을 수록했다. 회개기도와 용서기도, 고백하고 포기하는 기도, 하

님과 관계회복을 위한 기도 등을 수록해 읽는 이들이 쉽게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라잡이가 되어 주고 있다.

독자들에게도 같은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드린다”며 “사람과 삶의 문제의 뿌리(근원)를 발견하게 함으로 도움을 주기에 많은 사람들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것을 기대한다”고 출간 목적을 전했다.

저서로는 '우리동네 중보팀은 날마다 응답이다', '재 대신 화관' 이 있다. 책 구입 문의는 graceimrecon@gmail.com으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새롭게 선포되는 21세기의 천로역정”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천성은 있습니다. 천성에 가야합니다. 누구나 짊어진 길던 이 세상에서 일생이라는 여정을 끝내면 영원한 곳에서 살게됩니다.

김성국 목사가 방황하는 이 시대에 전하는 하나님의 뜻!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이 질문에 답을 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까 천성 가시길 원하신다면 반드시 대답하셔야 합니다.

지은이 김성국



저자 김성국 목사는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24시간을 유독 더 알차게 48시간처럼 살아가고 있다. 예수보다 중요한 것은 없고, 복음보다 긴급한 것은 없어 보인다.

이른 새벽 누구보다 일찍 하루를 열고 기도와 묵상과 심방과 설교준비까지 반복없는 일과가 일상화된 루틴 같지만 늘 새로운 도전과 하나님의 꿈 앞에 설레어 한다.

여러 언어의 민족이 각각 예배를 드리며 또한 연합으로 서로를 섬기는 다민족 예수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다. 성도와 함께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리라'를 즐겨 찬양하며, '어머니'란 말 앞에 늘 눈시울이 붉어진다.

때론 어린 아이처럼 순진무구한 모습으로, 때론 선한 거짓도 용납하지 않는 단호함으로, 때론 '복음 앞에 오직 승리'하는 전략기의 치밀함으로 그의 일상엔 영성을 노래한다.

-편집자 주-

히즈핑거는 주님의 손가락처럼 기독교 문화와 문학에 쓰임 받고자하는 미주크리스천신문사의 문화출판사 이름입니다.

히즈핑거 (His Finger)

책에 대한 문의는 히즈핑거 이메일 hisfinger8386@gmail.com 또는 전화 (718)886-4040, (323)665-0009로 연락해 주세요.

클로징로교회 담임목사
동부개혁교회 신학교 학장
미주크리스천신문사 사장
다민 TV 이사
(전) 해전대학 교회 담임목사
(전) 해전대학 교수 및 교육장

홍신대학교 (B.A)
홍신대학교 신학대학원 (M.Div)
고든콘웰 신학대학원 (Th.M)
고든콘웰 신학대학원 (D.Min)